

E02-2008-03/2008.10

제10권 제3호/Vol. 10 No. 3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최근의 북한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 포커스

대북 농업개발협력 정책 방향/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4 | 6. 농업기반 / 66 |
| 2. 벼농사 / 30 | 7. 산 림 / 70 |
| 3. 밭농사 / 40 | 8. 기타 작물 / 74 |
| 4. 감자농사 / 49 | 9. 기타 보도 동향 / 81 |
| 5. 축 산 / 57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01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1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111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12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27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27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34
- 북중 교역 동향 / 142
 - 1. 북한의 수입 동향 / 142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47

포 커 스

● 대북 농업개발협력 정책 방향

대북 농업개발협력 정책 방향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에 따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라는 네 가지 추진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남북 경협에 있어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상생과 호혜의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또한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도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키기는 하였지만 북한 핵불능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은 경제 분야 전반의 협력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량차관이나 비료지원의 중단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향후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 지금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북한과의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논의가 적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과의 농업부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추진절차, 추진체계와 제도, 대상 분야 등에 대해 논의코자 한다.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2007년 10.4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4정상선언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후속 회담에서 많은 내용이 합의되거나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 이전의 남북한 대화에서도 이미 논의되거나 합의된 것이어서 앞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보다 구체적인 개발협력 방안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1. 문제의 제기

○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

- 한반도 비핵화
- 상호주의 원칙 준수
- 철저하고 유연한 대북정책
- 북핵 해결과정과 국제공조 강화

⇒ 인도적 긴급지원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북핵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 지원의 무게 중심을 기존의 인도적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을 둘러싼 주변 환경

- 북미는 2.13합의에서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합의하였으나 검증에 둘러싼 갈등으로 북한이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를 시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음. 그러나 북미가 분리검증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북한 동의하 사찰이라는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일어난 남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북한은 남한 당국자의 방문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남북한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 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북한은 핵 불능화를 위한 조치를 다시 개시하였으며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농업이나 보건의료 등 정치적 색채가 얇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임. 시범사업을 시도하더라도 인도적 문제와 연계된 낮은 단계의 개발협력으로 제한될 것임.

2. 대북 농업개발협력 추진 과제

2.1. 개발협력의 추진 절차

- 수혜국에 개발협력 의사 타진
 - 우리 국민은 개발협력 주체의 하나이고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개발협력 여부, 범위, 내용, 추진방식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함.
- 국민의 의사 타진과 합의
 - 우리 국민은 개발협력 주체의 하나이고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개발협력 여부, 범위, 내용, 추진방식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함.
- 개발계획의 수립
 - 수혜국의 개발협력 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혜국의 농업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어떤 방식(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
 -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요예산을 편성
 - 사업계획서에는 (1)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 관계, 실태 파악 (2) 비전과 문제점 정의 (3) 대안적인 전략의 인식 (4) 가장 적합한 전략의 선택 (5) 목표와 기대치의 설정 (6) 논리적 틀을 사용하여 개발목표, 당면목표, 기대되는 결과, 활동 사항, 자원 등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각 항목별 외부적 요인을 검토 (7) 활동사항의 결정 (8) 소요자원의 결정 (9) 관리계획 수립 (10)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11) 외부 요인과 위험의 인식 (12) 사전 제약의 설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함.
- 자금 조달 방안 모색
 -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먼저 수혜국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과 지원되어야 할 재원 규모를 산출
- 개발계획의 승인
 - 소규모 사업은 행정부의 내부적인 승인만으로 절차가 완료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개발협력의 협정
 -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북측 상대방과 협정을 체결

○ 개발협력사업의 실행

- 협력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나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하며 복수의 실행주체를 정할 수도 있음.
- 간혹 정부나 다른 실행주체를 대행하여 관리지원단을 구성할 수도 있음.

○ 개발협력사업의 감독(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

- 감독과 평가가 완료되면 이해 당사자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교훈을 얻음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개발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2.2. 개발협력을 위한 선결과제

가. 국민적 합의

○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측과 수용하는 측 모두 내부적 합의가 필요

○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지만 개발지원의 성격이 강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연령 계층에 따라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
- 그러나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농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대북 지원을 위한 지출의사(willingness to pay)는 있으나 금액은 1인당 연간 2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다양한 재원을 찾아야 함.

○ 합의 도출 과정

- 중요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
-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투표행위뿐만 아니라 시위와 집회, 캠페인, 청원에의 서명, 기부, 조직의 설립, 조직 가입과 활동, 인터넷을 통한 주장 개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대중적 기부 참여 및 자원봉사 제도,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모니터링 및 정책고객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나. 남북한 합의와 북한의 수용 능력

○ 남북한 합의

- 제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장애물을 상당 부분 제거하였지만 경제협력의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북한의 계획 수립 능력

- 북한이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1990년대 말 유엔과 함께 “농업 및 환경 복구계획(AREP)”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

○ 북한의 관리능력

- 국제금융기구나 국제개발기구가 개도국에 개발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는 수원국이 사업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외부의 지원을 수용(absorb)하고 수행(implement)하는 능력으로 법치, 부패 수준, 민의 수렴 정도, 정책 집행 능력 등을 포함
- 관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발협력의 원래 목적과 방식을 따르기 어려우며 법과 제도의 미비, 부패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원된 물자의 낭비와 유출을 초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관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인적 훈련과 인력 양성을 통해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함.

다. 주변 환경 조성

○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핵문제 해결(불능화/신고 → 폐기)

○ 미일 등 선진 경제국과의 관계 정상화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이후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의 진전
-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관계 회복

라. 재원 확보

1) 북한 내부의 자원과 자금 동원능력

- 개발협력은 개발의 주체자인 북한이 내부자원(재원)을 동원하고 외부의 협력(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자체 자원의 동

원능력이 떨어질수록 개발협력의 성공 가능성도 낮음

- 내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동원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함

2) 남한이 제공하는 자원(유상 및 무상)

-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자원개발자금; 국공채 발행; 목적세

3)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유상 및 무상)

4) 국제금융기구 차입

- 국제금융기구는 IMF 등 국제통화제도를 주로 다루는 기구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개발금융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금융기구는 성격과 금융 지원 절차가 다르지만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구에 가입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함.
 -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또한 회원국으로 가입되더라도 실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선정 1~2년, 프로젝트 준비 3~6개월, 융자협의 1~2개월 등 총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 국제금융기구 차입을 위한 전제조건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IMF, IBRD, IDA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최근 이 조건은 만족됨.

3. 대북 농업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3.1. 기본방향

- 보편적 국제 규범의 추구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어린이 및 여성의 인권 개선; 주민소득 및 복지 증

진;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 남북한 화합에 기여
- 사업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적절성(relevance), 영향성(impact), 지속성(sustainability) 제고

3.2.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확립
 - 단기적인 농산물 증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농자재를 조달하여 품질 좋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
- 식량 공급의 안정
 -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 환경 친화적이며 농촌 주민이 소득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촌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3.3. 추진전략

가. 국민적 합의

- 개발협력에 대해 국민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의 주장에는 공동점도 있음.
 -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 모두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면 원칙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반대하지 않음.
 - 또한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상호주의의 적용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
-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 민주화된 다원적 사회에서 국민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 교류협력 정책 수립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북한 내 교류협력사업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함.
- 무엇보다 개발협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목표와 원칙, 절차, 추진 방식, 평가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투명성, 상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남북한 합의

- 남북한 교류협력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천적으로 남북갈등이 문제임.
 - 북한은 개발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적 구호만 외칠 뿐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있음.
- 남북한 사이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의 효시는 2005년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
 - 당시 남북한은 구체적인 농업 협력사업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제2차 정상회담 이후에야 실무회담이 개최됨.
- 개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능력을 제고해야 함.
 - 북한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며 물적, 지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다. 국제적 합의

- 한국의 힘만으로는 대북 개발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구와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현실적인 대안으로 6자회담 참가국과 북핵 문제와 대북 개발협력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영향력 있는 개별 국가와 협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라. 협력사업의 통합과 조정

-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에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협동농장 공동협력 : 농로, 관개시설 등 기반정비 여건을 고려하여 협동농장을 선정·운영하고 이를 남북 공동협력 거점으로 개발함. 협동농장들을 중심으로 농기계·농자재·영농기술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함.
 - 농업부문 기술협력 및 시설지원 : 남북농업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과 기술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및 기술을 교류함. 육종·재배기술 등 협동농장 협력과 연관하여 시행하고, 연구시설, 종자정선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지원함.
 - 농산물 협업체계 구축 :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 가운데 북한에서 재배·채취·가공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반입함. 수입대체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수급 안정에 기여함. 이를 위해 북측 생산 농·축산물의 검역·반입제도를 정비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 : 수해·산림·황폐지 복구 등을 통해 북한의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북한의 농업자생력을 높임.
-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을 추진
 - 농업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 추진해야 할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
-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식량안보 증진 사업; 농업생산기반 확립 사업; 농자재 공급의 안정 사업; 농산물 및 농자재 유통 효율화 사업; 농민 소득 및 복지 증진 사업; 수출농업 확대 사업; 농촌개발 사업; 환경보전 및 조림사업; 능력배양사업(연구 및 지도, 인력개발 및 훈련, 사업관리능력의 개선)

마. 추진주체의 역할분담과 협력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체계를 확립
 - 개발지원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

가 정책을 입안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민간단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할 경우 단체간 중복을 피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기구를 마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됨.

3.4.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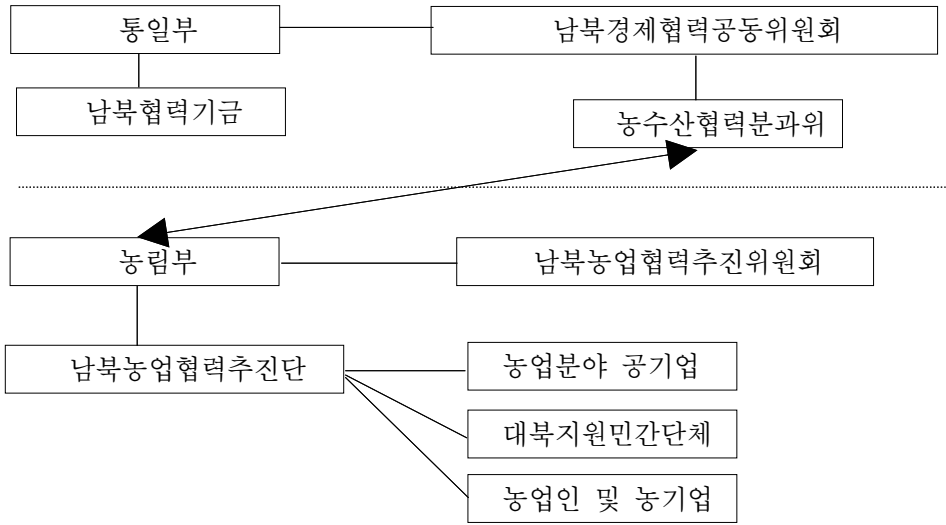
가.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 협력은 인도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자세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북 지원에 대한 정책은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향후 남북한 개발협력이 확대될 경우 현재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관련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었으나 그 후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법률이 필요함에 따라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
- 남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미비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일 뿐 세세한 협력의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협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
 - 현재 ‘대북인도적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교류와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에 제시된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화해야 함.

나. 추진체계의 구축

- 대북 농업협력을 추진코자 할 때 농림부는 주무 기관인 통일부와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
 - 농림부는 국제 농업·농촌개발협력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위원회와 대북 농업협력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및 전문가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음.
- 대북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
 - 대북 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는 통일부가 총괄
 - 통일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발협력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함.
- 대북 농업·농촌개발협력 추진체계(그림 1)

그림 1 남북 농업개발협력 추진체계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통해 농수산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함.
- 농림부는 농업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남북농업협력추진단’을 상설하고 특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운영.

다. 협력사업의 운영

-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을 총괄하며 각 분야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의 추진 여부, 우선순위 등을 조정함.
-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원을 통해 충당함.
-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참여할 경우 통일부가 실행하며 특정 부처의 업무와 연관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사업을 실행함.
- 모든 남북협력사업의 감독과 최종평가는 통일부가 담당
- 사업을 실행하는 부처는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괄부처인 통일부에 제출

라. 협력사업 추진절차(그림 2)

그림 2 남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절차

단계	추진절차	
사업계획의 수립	통일부	· 기본계획 수립
	농림부	·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부문 계획 수립→남북농업협력위원회 심의→확정→제출(통일부)
승 인	통일부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심의→북측과 협의 및 합의→승인→통보(농림부)
실 행	농림부	· 남북농업협력추진단 구성 · 북측과 사업실행계획 협의 · 재원확보→사업실행
감 독	통일부	· 감사단 구성→감사→감사결과 통보(농림부)
	농림부	· 북측과 협의→조치
평 가	농림부	· 자체평가단 구성→중간평가→결과 제출(통일부)
	통일부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중간평가 결과 검토검토 결과 통보(농림부) · 최종평가단 구성→최종평가→통보(농림부)
완 료	농림부	· 완료보고서 작성→제출(통일부)
	통일부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완료보고서 검토사업완결

4. 농업개발협력 수요

4.1. 북한의 개발협력 수요

가. 대북 지원과정에서 도출된 농업개발협력 수요

- 농업복구
 - 방조제 복구, 농업용수시설 보수 및 복구, 자연흐름식 물길 확충, 소규모 보 및 저수지 설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UNDP),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IFAD)
- 식량안보
 - 이모작 사업, 작물다양화 사업, 양어사업, 종자증식 및 보급,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IFAD), 연어 치어 방류 및 사료공장 건설
- 축산개발
 - 염소, 닭, 돼지, 젖소 목장 건설, 육류 가공시설 및 기술, 우유가공설비 및 기술, 가죽 가공시설 및 기술, 사료 생산시설 및 물자
- 지속적 농업 및 환경보호
 - 경사지 복구 및 조림, 지력증진, 병해충종합관리
- 농가소득 증대
 - 잠업개발사업(IFAD)
- 농촌에너지 개발
 - 태양열 온수시스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
- 농촌개발
 - 식수 및 위생시설 복구, 보건소 및 학교 시설 개선, 농촌 주택 및 마을길 개선
 - 농촌 공동문화시설 개선
- 능력배양
 - 농업 프로젝트 관리 인력 훈련, 농업기술자 해외 연수, 농업기술자 훈련, 농업기술 지원사업(FAO)

나. 언론매체 및 최고인민회의의 회의 내용을 통해 파악된 관심 분야

- 이모작 확대
 - 이모작 재배를 위한 농자재 공급 확대, 이모작에 적합한 보리·밀 종자
- 농업생산기반 확충
 -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의 확대, 노후 양수장 복구, 간척지 복구 및 제방보강
- 감자농사혁명
 - 씨감자 조직배양시설 및 장치, 씨감자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검정장비 및 시약, 씨감자 증식을 위한 각종 시설 및 물자, 씨감자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 종자혁명
 - 우량 콩, 보리, 밀, 채소 종자; 곡물 종자 보관 및 정선시설, 벼 및 채소 육묘장 신축 및 각종 물자 지원, 채소 종자 증식 시설, 기술, 왜성 사과 묘목 생산 및 과수원 확장
- 농기자재 확보 및 활용
 - 퇴비 및 흙보산비료 생산, 복합미생물비료공장 건설, 생물농약 생산
 - 트랙터 등 농기계 수리·정비, 감자수확기, 콩탈곡기 등 새로운 농기계 이용
- 농자재 공급 확대
 - 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경운, 운반, 수확용) 지원; 비료공장 개보수 및 신규 건설; 농약 제조 시설, 원료; 비닐 생산을 위한 시설과 원료; 농업기반 복구 및 확충을 위한 각종 장비 지원;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 농기계 부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원료; 농기계, 양수장, 수송 장비 가동을 위한 에너지 지원; 각종 시설 개보수, 신축을 위한 시멘트, 철근 등 물자 지원
- 농산물 가공산업 및 잠업 육성
 - 감자, 고구마 가공기지 건설; 뽕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 상묘, 비료, 약품; 누에 사육을 위한 잠실, 잠구; 신규 뽕밭 조성을 위한 장비, 상묘, 물자
- 축산진흥

-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타조목장, 염소목장 정비 및 현대화; 축산물 가공시설 건설: 유가공 시설, 고기 가공 시설; 사료 공급체계 정립: 사료공장 시설, 사료 원료; 풀판(초지) 조성을 위한 풀 종자, 각종 투입물

○ 양어사업

- 양어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 현대적 메기공장, 잉어공장 건설

○ 산림복구 및 조림

- 경사지 복구를 위한 물자, 장비; 조림을 위한 양묘장 복구; 나무 묘목 생산을 위한 종자, 물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와 약품

다.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 내용

- 협동농장 시범사업을 위하여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배합 사료 및 영농기술을 북측에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라 협력 사업을 확대
-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 처리시설을 지원
- 우량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재배기술 및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교류, 농작물의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구축, 농업전문가의 교류
-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분야 협력
-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4.2. 농업개발협력의 단계별 추진 분야

○ 북한의 당면 농정 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단기)

- 이모작 확대를 위한 비료, 비닐 등 각종 농자재, 벼 육묘시설 건설
- 감자농사 확대와 감자 증산을 위한 자재, 장비, 기술협력, 기술자 훈련
- 콩 재배 확대를 위한 콩 종자 및 기술협력
- 종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종자 정선 및 보관시설, 유전자원 보관시설 확충
- 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채소, 과수, 축산)
- 축산물 자급능력 확대를 위한 양돈장, 닭공장, 사료공장 건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조립공장 건설
- 농업생산기반 복구를 위한 자재, 장비

○ 수출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중기)

- 씨감자 및 감자저장고 건설 및 저장기술
- 하우스 등 시설농업 확충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 농산물 유통시설(저장, 수송, 가공) 개선과 확충
- 식품가공 시설 및 기술
- 양잠기반 확충 및 생사 가공기술

○ 미래의 수요에 대응(장기)

- 농업인 및 농업기술자 양성, 교육·훈련 시설, 실험 및 연구시설·장비
-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관상농업 확충(화훼, 관상수, 가로수, 풍치림)
-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농지, 수리시설 등) 정비, 확충
- 식품안전성 증대를 위한 각종 식품검사 장비 확충 및 관리시스템
- 황폐산지 복구, 산사태 예방, 조림 등 종합적 산림복구사업

5. 효과적인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안

5.1. 농업 관련 지원사업 추진 현황

- 농업분야에서 추진되는 정부 차원의 양자간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비료지원과 식량 차관의 두 가지가 있음.
 - 대북 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개시되어 지금까지 총 260만 톤을 지원
 - 대북 비료지원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0~35만 톤 씩 총 255만 톤을 지원
-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제공하는 식량지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추진하는 농업기술지원이 있음.
- 도 또는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북 농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차원에서는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남북농발협, 농협, 통일농수산물사업단 등이 다양한 형태의 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5.2.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연계 방안

-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을 연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음.
 - 신정부의 출범 초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농업개발협력을 제시하되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함.
 -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연계함으로써 현행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중앙정부
 - 현재 차관형태로 제공하는 식량차관은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되 지원의 목표와 수혜자 그룹을 명확히 설정함. 지원되는 식량은 농업기반의 복구와 확충, 산림병해충 방제와 조림,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 환경보전, 농어민 훈련, 어린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 활용함.
 - 거의 정례화에 가까운 비료지원은 1년 단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의 농업회복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일환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함.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농업회복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북한과 협의하고 비료지원을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킴.
 -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참여주체의 역량을 제고해 나감.
- 지방자치단체
 - 대북 협력사업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협력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
 - 사업을 계획할 때 명확한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 농업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가질 수 있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며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 역할을 분담함.
- 민간단체
 - 이미 많은 민간단체에서 대북 농업지원의 방향을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지원의 방식에는 차이가 없음.
 - 민간단체의 특성상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농업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로 산출된 식품을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연계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온실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채소재배사업이나 축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고 그로부터 산출된 채소나 축산물을 그 지역의 육아원, 유치원, 양로원 등에 공급함.

- 민간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 발전함.

5.3. 당면 개발협력 추진 과제

- 현재 추진 중인 개발협력사업이나 남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사업 가운데는 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
- 현재 추진 중인 개발협력 성격의 사업의 목표와 예상되는 성과 등에 대해 재검토하여 중단, 사업의 축소, 조기 완료, 수정 후 계속 추진,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
 -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민간단체의 사업이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합의 내용을 지키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식을 도출하는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다음 추진
 - 예를 들면, 농업분야의 경우 이미 합의된 5,000두 규모의 양돈장 건설을 위한 차관 제공 건은 양돈 기술자의 교류를 확대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HACCP(위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software 측면에서 사업내용을 보완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합의된 종자 저장시설 및 유전자 보관시설은 단순히 시설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남북한 관련 전문가의 교류, 종자 상호 교환, 유전자원 정보 교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니터링과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북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함.

동 향 분 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 산
6. 농업기반
7. 산 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요약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의 도입을 통해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농업방침임. 세계가 식량난으로 힘든 지금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짓는 동시에 분조관리제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고 이에 관련한 평가를 잘 수행해야 함.

농업성에서는 가을걷이와 난알털기에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기계와 운반도구, 탈곡기계를 동원하여 벼 수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전국 농촌에서는 밀, 보리, 강냉이 가을걷이가 한창임. 각 도에서는 제때에 난알을 거두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모작 보리와 밀 파종을 위하여 종자를 준비하고 파종을 제 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콩을 적기에 수확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자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감자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발갈이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자발 비배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또한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당에서는 고기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각 가정, 농장, 작업소에서의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토끼 기르기는 모든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음. 사료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풀판을 조성하거나 발효 먹이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각지 농촌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중소규모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큰물 피해를 막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하여 강하천관리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도로건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산림조성사업을 위해 나무심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무모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우량품종의 나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우량품종, 희귀품종의 나무를 대량증식시키기 위한 조직배양연구도 실시하고 있음.

인민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가을남새 씨뿌리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과일나무를 많이 생산하여 과일나무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기질비료와 대용농약을 통해 병해충을 막고 있음. 가을 유채심기 또한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1. 농업정책

-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의 도입을 통해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농업방침임. 세계가 식량난으로 힘든 지금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짓는 동시에 분조관리제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고 이에 관련한 평가를 잘 수행해야 함. 또한 이모작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함.

□ 농업정책

○ 일정계획을 어김없이(로동신문 7.16)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다”고 말함.
- 금천군에서는 열흘에 한번씩 김을 돌려 맬 목표를 세우고 김매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원명, 계정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상태를 따져가며 그날 계획은 그날 수행하기 위한 노동조직을 조직하고, 매일 김을 맬 포전 상태를 놓고 노력일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문명 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 복합비료의 효과성이 최대한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민주조선 7.16)

- 김정일은 “농업혁명은 곧 농업과학 기술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함.
- 각 농장에서는 토질과 기후조건에 맞는 품종, 농장의 실정에서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종자를 받아들이고, 종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농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적지 않은 조건에 맞게 실리적인 모기르기 방법과 비료주기 방법 등을 적극 받아들이고, 동시에 선진적인 벼모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야 함.

○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풀자(민주조선 7.22)

-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지어야 한다”고 말함.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임.
- 쌀은 곧 강성대국이고 사회주의임. 식량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류에게 닥쳐 있는 것임.
- 우리는 우리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해나가도록 해야 함. 모든 농장에서 두벌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어디서나 자기 고장의 풍토와 기후에 맞는 두벌농사를 꼼꼼히 해나가며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우량품종의 알곡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어야 함.
- 또한 감자농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감자생산을 늘리고 콩농사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함. 그리하여 올해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함.

○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짓자(로동신문 7.23)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시기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과업임. 온 세계가 식량난으로 힘든 지금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늘림으로써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자체로 풀도록 해야 함.
- 식량절약이 곧 생산임. 모든 일꾼들은 한알의 난알이라도 극력 아끼도록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식량절약투쟁을 군중적인 사업으로 벌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리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본방향은 당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음.
- 당조직에서는 두벌농사에 대한 지도를 정책적으로 해야하며 각 도, 시, 군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은 두벌농사의 본보기단위를 꾸리고 일방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어디서나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실속 있게 하도록 해야 함.

○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농사에 더 큰 힘을 넣자(민주조선 8.9)

- 김정일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함.
- 숙천군 위원회에서는 생육후반기에 들어선 농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철저히 과학기

술적으로 진행하여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는데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도 빈틈없이 하고 있음.
- 이미 김산농장에서 농작물 비배관리와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한 위원회에서는 아래단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영농수행 작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알고 이를 해결해주고 있음. 그리고 논물관리, 병해충 피해막이,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알려주고 있음.

○ 당면한 영농사업을 적극 펼치어(로동신문 8.11)

- 김정일은 “당조직과 당일꾼은 행정경제일꾼을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 그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어려운 때일수록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함.
- 실천적 경험은 농촌당조직과 당일꾼이 당면한 영농전투를 펼치는데 중심을 두고 행정경제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추진할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8.12)

- 김정일은 “농사의 주인은 농민이며 농민의 애국적 헌신과 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말함.
- 농장에서는 한해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업반장, 분조장을 비롯한 초급일꾼들의 하루작업 조직을 세밀하게 조직하여 이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노동력조직, 노동력평가와 함께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물관리, 비료시비 등 농작물 가꾸기를 철저히 과학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더불어 당면한 영농사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작업반에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며 농장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 농사일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있음.

○ 제힘으로 더 많은 알곡을(민주조선 8.21)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풀겠

다는 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북청군 농장에서는 현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직사업으로 논물관리공과 병해충 예찰원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그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논벼의 생육을 좋게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작업반, 분조에 풀거름 생산계획을 명확히 주고 역량을 집중하여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논물관리공들은 논벼농사에서 자신이 지닌 임무를 명심하고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논벼의 생육상태와 토양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이고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게 논두렁 손질을 하여 논벼의 생육을 좋게 하고 있음.

○ 농사의 주인된 자각안고 자체의 힘으로 더 많은 알곡을(민주조선 8.24)

- 김정일은 “우리나라에서 알곡생산의 예비는 두벌농사를 하는데 있다”고 말함.
- 일꾼들은 알곡수확고를 높이고 노동력 문제를 푸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조직사업을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적지 선정과 품종배치, 종자확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문제 등 경제사업의 어느 한 고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포전별 토양분석 자료를 다시한번 이해하고 논밭을 일일이 밟아보며 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품들여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모든 논면적에 실천과정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고리로 농장원에게 선진과학기술을 습득시키는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더 한층 강화하는 문제에 힘을 넣고 있음.

○ 토지황폐화 현상과 보호관리사업(로동신문 9.14)

- 김정일은 “토지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라고 말함.
- 지금 세계적으로 한해에 200억 톤이 훨씬 넘는 토양이 유실되고 사막의 면적은 매해 600만 ha씩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농경지의 수십억 ha에 달하는 토지가 침식되거나 지력이 떨어져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음.

-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호 관리사업을 잘하여 토지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원만히 보장해야 함. 우선 봄, 가을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사방야계공사와 강바닥 파내기, 수로정리, 수림화, 원림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함.
- 다음으로 농업부문에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업을 다각화해야 함. 보호농업기술을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생산 실천에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불경직과, 식물피복, 그루바꿈을 통하여 토양이 자체의 보호능력을 가진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적은 투자로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함.

○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자(로동신문 10.1)

- 김정일은 “모든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함.
- 부침땅 면적이 적고 지방별로 자연기후와 토양조건이 다르며 별방지대보다 산간지대가 많은 조건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도는 지대별 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여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작물을 대대적으로 심는 것임.
-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시켜야 함.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우량한 종자를 육종하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확립해야 농사를 집약화 하여 적은 부침땅을 가지고도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음.

□ 농업관리

○ 주인된 자각안고 꼼꼼하게(로동신문 10.6)

- 한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서는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적기에 질적으로 가을하여 거두어들여야 함.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봄내, 여름내 애써 지은 농사를 잘 결속하고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있음.
- 다 익은 곡식을 밭에 오래 두면 들수록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포전별, 날짜별 가을걷이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곡식을 싣고 운반할 때는 난알 허실을 막아야 함. 이를 위해서 각 농촌에서는 운반 수단의 준비를 잘하고 적재함에 실은 난알을 흘리지 않도록 필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또한 포전길을 잘 닦고 창자보수도 잘하여 곡식을 운반하고 보관하는데서도 난알허실이 없도록 해야 함.

□ 과학영농

○ 과학적인 재배방법으로(민주조선 7.17)

- 콩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재배기술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
- 종자가 다 같은 다수확 품종이고 농사조건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정보당 수확고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재배기술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임.
- 콩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단위에서 앞선 재배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또한 굳건으로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콩재배 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함.

2. 벼농사

- 농업성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기계와 운반도구, 탈곡기계를 동원하여 벼 수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해주는 동시에 노동력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김매기

○ 주어진 자각 안고 김매기를 실속있게(민주조선 7.18)

- 김정일은 “모내기 전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김매기 전투를 계속 힘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함.
- 알곡수확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인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위해 일꾼들은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음. 논김매기에서는 웅진군, 태탄군, 은천군, 재령군, 신원군 안의 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 있음.
- 7월 초에 논 세벌김매기를 제일 먼저 말끔히 끝낸 삼지강 협동농장을 비롯한 재령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김매기에 역량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음. 이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하에 노력을 가하고 있음.
- 해주시와 벽성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장마철 조건에 맞게 강냉이밭 후치를 적극 내밀어 흐르는 물이 밭에 고이지 않게 하고 있음.

○ 주어진 자각안고(로동신문 7.20)

- 김정일은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을 제철에 잘 매야 한다”고 말함.
- 각 농장에서는 농작물 가꾸기와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 있게 조직하여 작업반, 분조에서 김매기는 물론 농약치기, 논물관리 등을 잘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또

한 모든 영농과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제 1작업반에서는 김매기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4작업반에서는 김매기가 가지는 중요성에 맞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제 7작업반에서는 품종별 특성과 김이 나온 상태를 따져가며 김매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김매기 전투조직사업을 조직하여(로동신문 7.22)

- 박천군 룡곡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전투 조직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논밭을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고 있음.
- 더불어 논물관리공, 비료시비공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김매기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밭 네벌 김매기를 끝낸 기세로 논김을 더욱 알뜰히 매고 있으며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농작물

○ 농작물 가꾸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7.14)

- 알곡증산을 위한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김매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한 연안군에서는 당면한 김매기에서 이신작적의 실천적 모범을 보이고 있음.
- 김매기에서는 오현, 정촌협동농장이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적기에 끝낸 소정, 도남협동농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각 농장들은 김매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논물관리공, 시비시약공과의 사업을 조직하여 논물관리, 비료시비, 농약치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논밭을 꽃밭처럼 가꾸고 있음.
- 화산, 양화, 남촌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많은 협동농장에서는 모를 낸 날짜와 모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논물관리와 비료시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김매기를 간지게 함으로써 논벼가 잘 자라게 하고 있음.

○ 농작물 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7.15)

- 김정일은 “일꾼들이 다수확품종의 콩농사가 벼농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송화군에서는 자주 콩포전을 돌아보면서 다수확품종의 콩농사를 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농장 일꾼들을 돕고 있음.
- 군책임 일꾼들은 콩농사에 대한 농장원의 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미리부터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와 장마철 습해방지대책을 세우면서 생육후반기에 줄 덧비료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그 중에서도 생육 초기부터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콩농사도 벼농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꾼들은 병해충 예찰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한편 모든 농장원들이 병해충의 종류와 특성, 발생 시기 등을 잘 알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나서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 농작물 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7.22)

- 강원도 안의 협동벌에서는 김매기, 논물관리, 병해충 피해방지를 비롯한 농작물 가꾸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음.
- 도에서는 김매기를 비롯한 농작물 가꾸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 설비, 부속품을 마련하여 제때에 보내주고 있음.
- 원산시 룡천, 현동협동농장, 문천시 삼화농장과 관풍, 남창 협동농장 등에서는 김매기 계획을 포전별, 날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음. 영양알비료, 흙보산비료, 대용비료 등을 지대별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시비량을 정확히 정하고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주어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음.

○ 뒤그루 농작물 가꾸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8.1)

- 김정일은 “두벌농사는 짧은 기간에 식량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방도의 하나이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자력갱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꾼들은 각 농촌에서 적기에 심은 뒤그루 논벼, 강냉이, 콩, 감자포기의 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농작물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연백별 안에서는 포전별 논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모를 낸 날짜와 벼의 생육조건,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 비료주기,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가을걷이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민주조선 8.20)

- 당의 농업혁명방침에 따라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궤기모임이 8월 1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강창욱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허영호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꾼,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다그쳐 끝낼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이를 위해 포전별, 필지별로 낱알이 익은 상태를 따져가며 강냉이와 벼베기를 선행시키고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베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일 것에 대하여 언급함.
- 또한 작업반, 분조에서 탈곡기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낱알털기 속도를 높이고 털어낸 알곡이 손상되지 않게 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함.

○ 가을걷이 준비를 하나하나 빈틈없이(민주조선 8.23)

- 김정일은 “지금부터 가을걷이 준비를 잘하여 곡식이 여무는 족족 제때에 거두어들여 무리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가을걷이 준비를 잘해야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가을하고 탈곡하여 낱알허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 농장일꾼들은 가을걷이 준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꾼들은 트랙터와 연결 농기계, 탈곡기 수리정비, 중소농기구 준비와 저장고 보수 등 가을걷이 준비의 어느 한 고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
- 기계화작업반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마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손씨를 발휘하여 트랙터와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새것처럼 수리정비하고 있음.
- 재령군 청천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 준비뿐만 아니라 낱알털기 준비를 잘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탈곡과정에서 떨어진 낱알이 파묻히지 않도록 탈곡장 바닥을 깨끗이 포장하고 강냉이 저장고와 낱알보관 저장고 보수도 꼼꼼히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8.26)

- 김정일은 “지금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은 없다”고 말함.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순안구역 안흥농장에서 가을걷이와 탈곡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한알의 낱알도 허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술 강습을 실시하였음. 시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시주변 농촌의 해당 일꾼들이 참가하였음.
- 강습 이후 시주변 구역, 군, 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 준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실시되었음. 가을걷이 준비에서는 순안구역과 만경대구역, 사동구역이 앞장서고 있음.
- 사동구역에서는 룬전기재를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중요 방도로 내세우고 있음. 만경대구역에서는 매 농장의 분조에 성능 좋은 탈곡기를 갖춰놓고 가을걷이 후 바로 탈곡을 실시하고 있음.

○ 하나하나 따져가며 빈틈없이(로동신문 8.30)

- 평원군 군당위원회에서는 올해 가을걷이와 탈곡을 최적기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가을걷이 준비를 꼼꼼히 해나가고 있음.
- 협동농장에 나간 군의 일꾼들은 트랙터와 연결차 수리, 강냉이 탈곡기에 대한 수리정비를 완전히 끝낸 조건에 맞게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합심하여 벼탈곡기 수리와 탈곡장 보수, 야외건조장 건설을 제 기일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마다 트랙터 동력에 의한 벼탈곡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탈곡을 제 기일에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제때에 말끔히 털어낼 수 있게(로동신문 9.13)

- 장연군에서 벼탈곡기와 강냉이탈곡기, 강냉이 저장고 수리보수 등 가을걷이 준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산협동농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자체로 여러 가지 부속품을 마련하여 짧은 기간에 여러 대의 탈곡기를 손색없이 수리하였음.
- 석장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저장고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이미 있던 강냉이 저장고를 없애고 보다 견고하면서도 문화성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9.14)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시, 군 협동농장에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뿐 아니라 트랙터와 탈곡기, 탈곡장과 창자, 소농기구 등 수리정비대상을 옳게 정하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에서는 룡천군, 운전군, 피현군, 신의주시, 정주시, 박천군, 염주군, 태천군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벼가을이 시작되었다(로동신문 9.17)

- 황해남도 안의 농촌에서는 벼가을이 시작되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안의 농촌 각지에서 가을걷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꾼들을 현장에 내보내 벼가을과 운반, 탈곡과 포장 등 모든 일을 입체적으로 벌여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음.
- 새길,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작업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가을걷이를 시작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많은 수동식 탈곡기를 협동농장에 보내어 어떤 조건에서도 가을한 벼를 제때에 탈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삼지강협동농장과 오국협동농장에서는 예견되는 날씨와 포전별 특성에 맞게 적기를 잘 정하고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벼가 익는 족족 가을을 시작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마감단계에서(민주조선 9.19)

- 온천군에서는 알곡생산을 늘리는데서 가을걷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가을걷이 준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트랙터와 연결농기계, 탈곡기 수리정비, 중소농기구 준비와 저장고 보수 등 가을걷이 준비정형을 완벽하게 하고 제기되는 문제 또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가을걷이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민주조선 9.20)

- 안주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당면한 영농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과 기술지도를 참신하게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일해 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음. 또한 품종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가을걷이 적기를 바로 정하는데 나서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농작물의 가을과 운반, 탈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대로 일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현지에 일꾼들을 내려보내 영농작업에 대한 지도를 실시토록 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가을걷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벼가 익는 족족 가을하자(로동신문 9.26)

- 각지 농촌경리부문 일꾼, 농업근로자들은 한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벼가을에 집중하고 있음.
- 벼가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임. 모든 곡식은 품종과 지대별 특성, 심은 날짜에 따라 가을걷이 적기가 있기 때문에 익는 족족 가을해야 낱알의 허실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논판의 물을 제때에 빼도록 해야 함. 당장 벼를 가을해야 할 포전에 물이 있

으면 벼가을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음. 벼가을을 앞두고 물을 말끔히 뽑아 논판이 꾸둑꾸둑하게 만들어져야 벼가을 실적을 올릴 수 있음.

- 작업반장, 분조장들은 분조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노동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여주어야 함.

○ 각지 농촌에서 벼가을 시작(민주조선 9.30)

- 벼가을에 제일 먼저 들어선 황해남도에서는 가을과 윤반, 탈곡과 포장 등을 입체적으로 벌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벼베기 실적을 연일 높이고 있음.
- 신천, 재령, 안악군의 협동농장에서는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소농기구도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여 벼가 익는 족족 가을하고 있음. 배천, 청단, 연안 등 연백벌에서는 벼가 잘 익은 포전부터 둘레베기를 앞세우고 단뭉기를 실시하면서 벼가을을 다그치고 있음.
- 평안남도과 황해북도 내 농촌에서 또한 벼가을이 실정에 맞게 실속 있게 추진되고 있음.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에서는 곡식을 제때에 수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논물빼기를 선행시키면서 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 전투로 들끓는 협동벌(로동신문 10.2)

- 군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배천군에서는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 군일꾼들은 모두가 현장에 내려가 가을걷이 준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벼탈곡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빨리 끝내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가을걷이에 집중하고 있음.
- 추정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과 실어들이기, 난알털기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산, 봉화협동농장에서는 논판의 물을 제때에 뽑아 벼가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벼가을로 들끓는 협동벌(민주조선 10.2)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 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족족 제때에 건어들이며 탈곡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함.
- 황해북도에서는 봄철 영농전투 때처럼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해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 군에 내려간 위원회 일꾼들은 농촌에서 벼가 익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벼가을 적기를 바로 정하고 필지별, 포전별 일정계획에 따라 가을걷이를 해나가도록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대릉, 봉의, 정방협동농장에서는 모든 역량을 벼가을에 집중시키고 벼모를 낸 날짜와 작황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벼가 잘 익은 포전부터 가을을 하고 있음. 벼가을 시작을 잘 댈 시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로 세운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구포, 철도, 포남, 삼전, 장천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을 할 논판의 특성을 사전에 이해하고 농장원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그날 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도록 하고 있음.
- 봉산군, 송림시, 평산군, 금천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베어놓은 벼를 제때에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민주조선 10.4)

- 룡강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벼가을걷이 계획에 따라 벼가을걷이 조직을 구성하고 모든 역량을 당면한 벼가을걷이에 선차적으로 돌리고 있음.
- 읍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제일 먼저 끝낸 기세를 이어 벼가을걷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운반수단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여 가을한 벼를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음.
- 립송, 룡호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필지별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조건을 자체로 마련해가며 벼가을걷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또한 벼베기와 단묵기, 동가리치기 등 모든 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난알허실을 줄이고 있음.

○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민주조선 10.5)

- 경원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한명의 노동력, 한대의 운반수단이라도 가을걷이에 더 많이 동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실정에 맞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포전별, 필지별 작업조건과 농장원의 준비정도에 맞게 노동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트랙터와 소달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효과있게

이용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있음.

- 사수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별, 분조별 경쟁구조를 조성하여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중영협동농장에서도 여러 가지 중소농기구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강냉이와 벼가을을 빠른 속도로 해내고 있음.

○ 일정계획을 어김없이(로동신문 10.7)

- 평안남도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한해농사를 결속하는데서 가을걷이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시, 군에 가을걷이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공정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벼가을에 들어선 평원군에서는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성과를 올리고 있음. 송석, 대풍협동농장에서도 벼가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벼를 베어 들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안주시, 증산군, 온천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한알의 낱알도 허실 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필지별, 포전별 일정계획에 맞게 가을걷이를 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모든 힘을 벼가을걷이에 집중(로동신문 10.9)

- 평안북도의 농촌당조직에서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선전하면서 농업 근로자 모두가 헌신성을 안고 가을걷이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벼가을과 함께 벼단을 제때에 베어 탈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은흥, 덕흥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 달구지 등 운반수단에 대한 수리정비사업을 실속 있게 하고 포전도로에 대한 보수작업도 잘하여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
- 선천군, 운전군, 박천군에서는 벼가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트랙터와 달구지를 동원하여 벼단을 제때에 운반하고 있으며 실어들이는 족족 낱알탈기를 실시하고 있음.

3. 밭농사

- 전국 농촌에서는 밀, 보리, 강냉이 가을이 한창임. 각 도에서는 제때에 낱알을 거두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모작 보리와 밀 파종을 위하여 종자를 준비하고 파종을 제 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콩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콩을 적기에 수확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또한 콩가공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콩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두벌농사(이모작)

○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7.23)

- 김정일은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룡강군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뒤그루작물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낸 후 김매기와 비료주기, 병충해막이를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 일꾼들은 뒤그루논벼와 강냉이밭 가꾸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어 생육상태를 좋게 하는 한편 뒤그루콩농사에 각별한 힘을 넣고 있음.
- 룡호, 립송협동농장에서는 후치질을 앞세우면서 뒤그루콩밭 두벌김매기를 이미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들어갔음. 다수확품종의 콩농사를 벼농사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는 농장 일꾼들은 모든 농장원이 콩밭을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도록 실천적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두벌농사, 세벌농사에 품을 들여(로동신문 8.28)

- 김정일은 “두벌농사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 만큼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몇 해 전부터 농장에서 밀, 보리 대 콩두벌농사와 유채 대 강냉이 대 가을남새 세벌농

사 등의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 농장의 두벌농사, 세벌농사 면적은 더 늘어났음.

- 읍협동농장에서는 작물별 품종선택과 각종 유기질비료생산, 앞선 영농방법 도입 등 두벌농사, 세벌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일꾼들과 기술자, 농장원이 노력하고 있음.

□ 콩농사

○ 영양가 높은 콩가공품을 더 많이(민주조선 7.17)

- 김정일은 “콩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콩을 가공하기 위한 기계도 연구하고 콩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함.
- 기초식품의 종류를 더 늘리고 질을 높이며 두부와 같은 전통적인 콩음식의 가공방법을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콩우유, 콩산유를 비롯한 콩가공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콩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음.
- 콩음식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콩음식의 가공방법과 기술 뿐만 아니라 기름짜는 기계, 콩우유 설비를 비롯하여 콩가공설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함.

○ 창고마다 콩마대가 꽉 들어차게(민주조선 7.17)

- 김정일은 “모든 도, 시, 군에서는 모범을 보이는 인민군대를 따라 배워 콩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함.
-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종자를 마련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함. 종자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품을 들여 농사를 지어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없음.
- 또한 적지를 바로 정해야 함. 아무리 종자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콩을 척박한 땅이나 빈 땅에 심어서는 콩생산을 늘릴 수 없음.
- 더불어 콩농사를 하는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콩재배방법을 선택하여 콩을 원그루로도 심고 사이섞음(간작) 그루와 겹재배 같은 방법으로도 심도록 해야 함.
- 콩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료문제 또한 매우 중요함. 콩농사에서는 유기질 비료가

기본임.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부침땅의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사람의 건강에도 좋음.

○ 뒤그루콩밭 비배관리를 알심있게(민주조선 7.24)

- 정주시에서는 뒤그루콩밭 비배관리에 대한 지도를 참신하게 하여 포기마다, 포기마다 최대수확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음.
- 이미 신봉협동농장과 세마협동농장에서 뒤그루콩밭 비배관리와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품을 들여 조직한 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이 노동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콩밭 김매기와 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신봉협동농장에서는 날짜별, 포기별 콩밭김매기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특히 부림소를 이용하여 콩밭 배토작업을 집중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고 있음.

○ 콩밭 비배관리에 큰 힘을(민주조선 7.29)

- 회양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콩의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맞게 콩밭 비배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는 농업과학기술지식 선전실 운영을 통해 농장원들이 시기별에 따르는 비배관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꾼들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콩밭 비배관리를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전곡, 포천협동농장에서는 콩밭 김매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곳에서는 부림소를 이용하여 후치질을 앞세우고, 풀이 아니라 흙을 매는 심정으로 김매기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콩밭 가꾸기에 정성을 기울여(민주조선 8.12)

- 김정일은 “콩은 우리 인민과 군인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작물 중 하나이다”라고 말함.
- 대관군 군당위원회에서는 콩농사를 잘해야 더 좋은 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는 것을 농장원들에게 인식시켜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이고 있으며, 콩밭 가꾸기를 위한 노동력 조를 조직하고 있음.
- 군책임일꾼은 콩밭가꾸기 정형을 매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한편 콩밭면적이 많

은 농장에 나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농장원을 이끌고 있음.

- 읍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한포전씩 큰물피해막이와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세우면서 모든 공정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

○ 백두개마고원에서 밀, 보리가을 한창(민주조선 8.19)

- 량강도 안의 농촌에서 밀, 보리가을이 한창임.
- 도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지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함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빈틈없이 하여 가을걷이에 들어섰음.
-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은 협동농장, 작업반, 포전별로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시키고 있음.
- 삼일, 회린협동농장을 비롯한 갑산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해발고가 낮은 지대에서 보리가 익는 족족 가을걷이를 시작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도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수송수단을 집중하여 가을하는 족족 제때에 탈곡장에 실어 들여 털어나고 잘 말리워 보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음.

○ 밀, 보리 가을걷이 한창(민주조선 8.28)

- 9월 군 안의 일꾼, 농업근로자들은 다 지어놓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 없이 제때에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 준비를 미리부터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가을걷이에 들어갔음.
- 농장에서는 포전별로 밀, 보리가 있는 족족 걷어들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시키고 있음.
- 신덕, 삼봉, 서두, 신흥농장이 밀, 보리 가을걷이에서 앞장서고 있음. 농사동, 창평, 홍암농장에서는 수송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수확기에서 털어낸 밀, 보리를 제때에 실어들이고 잘 말려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를 질적으로(로동신문 9.18)

- 각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강냉이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

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음.

-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포전을 직접 밟아보면서 강냉이가 익은 상태에 따라 가을걷이조를 조직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총집중시켜 계획을 매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을한 강냉이는 그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여야 함. 각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특성과 탈곡장까지의 거리에 맞게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노동력조를 잘 조직하여 강냉이를 제때에 실어나르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를 힘있게 내민다(민주조선 9.18)

- 황해남도의 해주시, 신천, 재령, 연안군에서는 강냉이 가을걷이를 시작하였음.
- 특히 석천, 석미, 신광협동농장을 비롯한 해주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익은 강냉이를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벌써 많은 면적의 강냉이를 거두어 들였음.
- 안악군, 은천군, 배천군에서는 면밀히 세워놓은 포전별, 날짜별 가을걷이 계획에 따라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작업정량을 정확히 주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력 평가사업 또한 실속 있게 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도에서는 베어놓은 강냉이를 밭에서 묵히지 않고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 또한 철저히 세우고 있음.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를 베는 족족 이삭을 따서 트랙터와 부림소, 달구지 등 수송수단을 총동원하여 탈곡장에 실어날려 낱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그날 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로동신문 9.22)

- 김정일은 “강냉이를 여무는 차례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말함.
- 강서군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지은 낱알을 적기에 가을하여 거두어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군인민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에 필요한 중소농기구를 협동농장에 보내줌으로써 농장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음.
- 협동농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고 포전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강냉이가 여문 상태를 세세히 이해한데 기초하여 가을걷이 계획을 포전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음.
- 태성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달구지 등 운반수단을 집중시켜 가을한 강냉이를 그

날로 탈곡장까지 실어내어 잘 말리우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 한알도 허실없이 거둬들인다(민주조선 9.24)

- 봉산군 협동벌에서는 강냉이 가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을 하나씩 맡고 강냉이 가을을 최적기에 하는 것이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농장원에게 해설해주는 한편 강냉이 포전을 일일이 밟아보면서 강냉이가 여문 상태에 따라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송산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에 들어가기 전에 강냉이 가을을 말끔히 끝낼 목표를 내걸고 강냉이 가을 마감단계에 진입하였음.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에서 이삭파는 조, 나르는 조, 대베는 조 등 노동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서 강냉이 가을을 해내고 있음.

○ 한이삭도 허실 없이(민주조선 9.26)

- 김정일은 “농촌에서 봄내, 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술한 낟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함.
- 개천시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강냉이를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협동농장에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보장하는 한편 강냉이가 익은 포전부터 가을을 시작하고 가을하는 족족 실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 보부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알뜰하고 간진 일숨씨를 발휘하여 탈곡장에 들어온 강냉이 껍질 벗기기를 제때에 실시하고 있음.
- 삼포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이삭파기를 앞세우면서 대베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쪼단속에 강냉이 이삭이 묻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가을걷이 전투로 들끓는 농장벌(로동신문 9.27)

- 룡천군에서는 강냉이를 익는 족족 제때에 가을하여 거두어들이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군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낱짚별, 포전별 강냉이 가을걷이 계획을 달성하고 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강냉이 가을과 관련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구읍협동농장에서는 각종 탈곡기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강냉이를 실어들이는 족족 껍질 벗겨 탈곡을 하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벽암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를 제때에 수확하지 않으면 많은 난알을 허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골짜기 포전의 강냉이부터 수확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가을걷이로 협동별이 들끓는다(민주조선 9.28)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성과 있게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강냉이 품종별로 심은 날짜와 여문 상태에 따라 가을걷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가을걷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가을걷이에 진입한 신흥군에서는 가을걷이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노동력을 집중시켜 강냉이가 여무는 족족 가을하는 한편 트랙터와 달구지 등 합리적인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한 강냉이를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음.
- 흥원, 정평군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강냉이 가을걷이 실적을 부단히 높이고 있음.

○ 가을걷이를 질적으로(로동신문 9.30)

-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순안구역 안흥농장에서 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며 각 협동농장이 모든 역량을 가을걷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을걷이에서는 강남군과 력포구역, 중화군 안의 협동농장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영진, 신흥, 당곡협동농장을 비롯한 강남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작물 가꾸기를 알차게 해나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협동농장에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벼수확기와 트랙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냉이가 여무는 족족(민주조선 9.30)

- 철원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강냉이가 여무는 족족 제때에 가을하여 걷어

들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가을걷이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에서는 읍, 문합협동농장이 앞장서고 있음. 이곳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이삭따기를 앞세우고 대베기, 홀린 이삭이 없는가 살펴보는 일을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트랙터와 달구지 등 운반수단 또한 집중시켜 강냉이 가을걷이 성과를 높이고 있음.
- 군에서는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소개, 일반화하면서 이달 말까지 기본면적의 강냉이 가을을 전부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 있게 실시해나가고 있음.

○ 적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민주조선 10.2)

- 배천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가을밀, 보리씨 뿌리기가 시작되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밀, 보리씨 뿌리기가 벼가을걷이와 겹쳐서 진행되는데 맞게 협동농장에서 노동력조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모든 작업이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신월협동농장에서는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씨뿌리기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특히 씨뿌리기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추정, 금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농사일이 겹치지만 노동력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군적으로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실적이 날로 성과를 이루고 있음.

○ 강냉이 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10.3)

- 함경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 애써 지어놓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이 협동농장에 나가 해당 단위 일꾼들과 함께 강냉이 가을을 제때에 실속있게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흥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이삭따기, 강냉이 대베기, 운반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가을걷이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허실을 줄여 따들인 강냉이를 제때에 창고에 넣고 있음.

- 룡호, 옥천, 춘동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 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또한 벼가 여문 정도에 따라 벼가을걷이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총집중(민주조선 10.5)

- 자강도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를 최단 기간 안에 빨리 끝낼 수 있게 가을걷이에 농촌의 모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키고 곡식이 익는 족족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 이미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리정비작업을 끝냈으며 포전도로를 말끔히 정리하여 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보장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음.
- 종포, 무덕, 향하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필지별로 강냉이가 여무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빠르게 가을할 수 있게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웠으며 그에 따라 강냉이 가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류삼, 관평, 삼거, 운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자성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분조별, 작업반별 경쟁구조를 만들어 매일 많은 면적의 강냉이를 가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따놓은 강냉이를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음.
- 화평군, 위원군, 동신군, 송원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면적이 많은 조건에 맞게 강냉이 이삭따는 조, 대베는조, 운반조를 조직하고 앞장서서 가을걷이 실적을 높이고 있음.

4. 감자농사

-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자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감자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발갈이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감자발 비배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또한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감자수송계획에 따라 운반수단을 보장하여 캐낸 감자를 바로바로 운반하여 가공처리하고 있음.

□ 감자농사 정책

- 감자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민주조선 8.21)
 - 대흥단군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감자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요즈음 감자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당면한 감자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장마철 피해막이, 역병방지 등 당면한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대중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있음.
 - 특히 농장의 기술일꾼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 기술일꾼으로 하여금 실정에 맞게 비배관리를 위한 기술조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감자수확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예견성 있게 실시하여 군농기계작업소와 농장에서 가을걷이에 동원되는 농기계 수리정비를 책임지고 하고 있음.
-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발표 10돌 중앙보고회 진행(로동신문 10.1)
 -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의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9월 30일 대흥단군에서 진행됨. 보고회에는 최태복, 최영립, 광범기 내각부총리,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참가하였음.

○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민주조선 10.1)

- 로동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은 북한의 자연기후조건과 지대적 특성에 맞는 방침이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침임.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은 농업과학기술혁명에서 나서는 중요 문제 중의 하나임.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감자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심는데 관심을 돌려야 함. 감자육종사업을 잘하여 좋은 다수확 감자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고산지대에서는 모든 포전마다 기후풍토조건에 맞으며 생산성이 높은 감자종자를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발갈이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는 것이 감자농사에서 매우 중요함.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를 비롯한 기계수단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감자농사를 위한 모든 일을 제철에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또한 감자농사를 잘짓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야 함.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관철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

□ 감자농사

○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할 일념안고(민주조선 7.13)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라고 말함.
- 량강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밭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 지도를 착실하게 하고 있음. 감자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대홍단군 일꾼들은 농기계의 만가동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감자밭 배토작업을 앞세운 기초 위에 김매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자체로 만든 효능 높은 예방약을 감자포기에 충분히 뿌려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역병감시초소를 늘리고 감시조직을 조직하여 가꾼 감자포기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감자밭 가꾸기에 큰 힘을 넣어(로동신문 7.18)

- 낭림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감자밭 가꾸기에 한창임.
- 각 협동농장에서는 감자밭 김매기에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작업반, 분조에서 노력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초급일꾼들이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농장원을 이끌어나가 김매기에서 연일 혁신을 이룩하고 있음.
-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로 만든 식물성 농약을 기술적 요구대로 감자밭에 치고 있음.
- 련화, 신전, 문악 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를 다그치며 대중을 이끌어 군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음.

○ 감자밭 가꾸기에 힘을 집중(민주조선 7.19)

- 룡림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감자밭 가꾸기에 한창임.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장마철에 감자역병을 미리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남상협동농장에서는 일꾼들이 앞장서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감자밭 둘레 배수로 파기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후치질을 다그치면서 감자역병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감자포전을 밟아보면서 물도랑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감자농사를 신심있게 내밀어(로동신문 7.23)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라고 말함.
- 삼지연군에서는 감자농사를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있으며, 감자역병 방지에 힘을 쏟는 동시에 화선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음.
- 감자밭 가꾸기에서는 보서, 포태, 중흥농장이 앞장서고 있음. 보서농장에서는 중경제초

기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포태농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감자밭 가꾸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감자밭 비배관리를 실속있게(민주조선 7.23)

- 김정일은 “다수확 감자종자를 심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물거름을 많이 주면 감자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함.
- 대흥단군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감자포전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 지도를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 서두농장에서는 지난해 감자농사에서 앞장섰던 기세를 이어 비배관리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며, 작업반에서는 덧거름주기와 김매기를 열심히 하고 있음.
- 신흥, 신덕, 삼봉농장에서는 김매기와 덧거름주기를 앞세우고 중경제초기에 의한 복주기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비배관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민주조선 8.19)

- 부전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올해에 감자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기여할 높은 열정을 안고 감자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감자의 생육단계와 날씨조건에 맞게 비배관리를 대흥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기 위한 기술적 지도 또한 실시되고 있음. 일꾼들은 협동농장에서 감자비배관리에 계속 큰 힘을 쏟으면서 가을과 운반, 저장, 가공준비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백암협동농장에서는 씨불임과 김매기를 비롯한 지난 영농공정수행에서 앞장섰듯이 역병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비롯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감자비배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8.29)

- 백암군에서는 감자밭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하여 돼지우리마다에서 물거름을 받아 내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해내고 있음. 특히 원봉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 생산 비중을 늘리고 지난해보다 니탄을 많이 실어들이면서 흙보산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고 김매기와 중경제초기에 의한 복주기 등 비배관리를 철저히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군에서는 감자역병을 미리 막기 위한 농약치기 등 영농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감자밭의 이랑을 밟아가며 김을 매어 포기마다 최대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

○ 생산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9.4)

- 대흥단 감자가공공장의 개건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었음.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공장의 감자가공능력을 1.5배로 올린 조건에 맞게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올해 감자농사에서 더 큰 성과를 일으키기 위하여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트랙터와 감자수확기 등 농기계의 상태를 알아보고 수리정비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감자캐기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 있음.

○ 백두삼천리벌에서 감자캐기 시작(로동신문 9.13)

- 대흥단군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감자를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음.
-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감자작황을 포전별로 이해하고 날짜별 감자캐기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있음. 그리고 감자수확기, 트랙터, 자동차의 출동식을 한데 이어 감자캐기와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현지에서 진행하였음.
-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서리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구의 포전부터 감자캐기를 시작하도록 하고 켄 감자는 그날로 실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군 안의 농장에서는 감자캐기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감자종자 저장과 보관에 특히 힘쓰고 있음.

○ 캐는 족족 실어나른다(민주조선 9.16)

- 김정일은 “감자 저장과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함.
- 감자캐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군 감자수송대의 일꾼, 종업원들이 캐어낸 감자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들은 감자수송계획을 세우고 화물차의 기술상태와 운전사의 기능수준에 맞게 작업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농장에서 감자를 캐는 족족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고 있음.

- 일꾼들은 운반수단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자캐기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감자캐기에 나래치는 기상(로동신문 9.18)

- 대흥단군, 삼지연군, 백암군, 장진군, 부전군에서는 감자캐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는 감자종합수확기, 트랙터, 자동차의 출동식과 감자캐기 보여주기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군에서는 일제히 감자캐기에 돌입하였음. 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감자캐기에 집중하고 기계 이용률을 높여 감자캐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삼지연군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추위가 빨리 오는 조건에 맞게 포전별로 따져가며 감자캐기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날 계획을 그날로 수행하도록 농업근로자들을 추동하고 있음.

○ 감자캐기에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9.23)

- 삼지연군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감자캐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위하여 모든 역량을 감자캐기에 총동원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농장에서 감자캐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흥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감자수확기를 맡은 기계화 초병들이 자신들이 수리 점검을 책임지고 하면서 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보서, 통신평동농장에서는 한명의 노동력, 한대의 농기계라도 감자캐기에 더 동원하는 한편 작업공정별 노동력조를 구성하고 농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그날 계획은 그날로 실천해나가고 있음.

○ 감자캐기를 다그친다(로동신문 9.24)

- 백암군에서는 감자캐기가 시작되기 전에 밀, 보리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완전히 끝냄으로써 감자캐기 전투에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 황토협동농장에서는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꾼들이 실천적 모범으로 농장원을 이끌어 날마다 감자캐기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광덕농장과 유평, 읍협동농장에서도 감자캐기와 운반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에서는 감자캐기와 함께 수송과 보관에도 큰 힘을 넣고 있음. 군 안의 트랙터 운전수와 군농기계 작업소 운수직장의 자동차 운전사들은 캐낸 감자를 빨리 실어나르기 위해 애쓰고 있음.

○ 감자캐기를 힘있게 다그치자(민주조선 9.27)

- 삼지연군의 농장에서는 포전별로 감자캐기 일정계획을 정확히 추진하여 감자캐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음.
- 감자캐기는 특히 중흥, 중토장, 흥계수농장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이곳에서는 트랙터와 감자수확기를 직접 타고 기대공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기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있음.
- 백암군에서는 감자농사를 위주로 하면서 토양조건과 포전상태가 서로 다른 농장, 협동농장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기계수단과 축력, 노동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당면한 감자캐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음.
- 동계, 상담, 덕립, 양곡협동농장에서는 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달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적극 동원이용하여 감자를 캐는 족족 실어들여 가공처리하고 있음.

○ 감자캐기에 모든 역량을(민주조선 10.2)

- 량강도에서는 감자농사가 기본으로 되는 도의 특성에 맞게 농업부문은 물론 모든 역량을 당면한 감자캐기에 집중하여 애써 지은 감자를 한알도 허실함 없이 제때에 캐들이고 가공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농업지도기관에서는 산하농장, 협동농장에 내려가 지대적 조건과 농장, 작업반, 포전별 특성에 맞게 감자캐기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맞물리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감자캐기에 총집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에서는 현대적 트랙터와 감자종합수확기, 화물자동차를 만가동시켜 감자를 캐는 족족 실어들이면서 대흥단 감자가공공장과 신흥, 흥암, 백산전분공장에 만부하를 걸어 캐들인 감자를 제때에 가공처리하고 있음.
- 창평, 농사동, 서두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장에서는 감자를 캐면서 다음해 농사에 쓸 종자를 알알이 골라 종자저장고에 보관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감자캐기 마감단계(로동신문 10.9)

- 부전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이 계획에 따라 감자캐기를 실시할 수 있

도록 방송선전차와 포전 방송기재를 이용하여 화선식 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은하협동농장이 군적으로 감자캐기를 제일 먼저 끝낸데 이어 개화, 호반협동농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백암, 여운, 안기협동농장에서는 좋은 종자를 골라 보관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군 안의 공장, 기업소 등에서는 감자농사를 함께 책임진 입장에서 한이량의 감자를 캐도 질적으로 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감자 가공공장

○ 개진확장공사를 끝냈다(로동신문 8.27)

- 대흥단 감자가공공장은 개진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공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감자를 선별하여 제때에 가공공정에 보낼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가공능력이 종전보다 1.5배 늘어남으로써 감자가공에서 높은 기록을 돌파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음.

○ 감자 가공공장 새로 건설(민주조선 10.7)

- 갑산군에 감자 가공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군안의 근로자들이 식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윤택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갑산군인민위원회에서는 군의 조건에 맞게 감자 가공공장을 새로 건설할 목표 하에 준비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일꾼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계획대로 건설을 완공할 수 있었음.
- 위원회에서는 공장의 일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생산을 계속 늘리도록 하는 한편 수백 톤 능력의 감자저장고 건설을 완공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5. 축 산

- 당에서는 고기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각 가정, 농장, 작업소에서의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토끼 기르기는 모든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음. 사료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풀판을 조성하거나 발효 먹이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의방역사업임을 내세우며 집짐승에 대한 전염병과 기생충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축산동향

-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힘있게(민주조선 8.2)
 - 김정숙군 저풍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려 많은 고기와 젖, 털가죽을 생산하고 있음.
 - 특히 염소를 대대로 기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쏟고 있음. 농장에서는 종축 작업반에 우량품종의 종자염소를 확보하고 새끼 생산조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염소마리수를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또한 농장에서는 토끼 기르기에다 힘을 쏟고 있음. 작업반마다 공동토끼 우리를 지어놓고 토끼를 기르도록 하면서 분산사육에도 힘을 넣고 있음.
- 강서돼지공장 훌륭히 개건(로동신문 8.17)
 - 김정일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우리 대는 물론, 후대도 그 덕을 볼 수 있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강서돼지공장은 생산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설비와 건축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되었음.
 - 공장에서는 돼지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수십동의 생산건물이 갖추어져 있으며 돼지 우리 온습도 조절장치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

음. 뿐만 아니라 생산건물과 보조건물이 현대적 미감이 나게 건설되고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공장의 풍치 또한 멋짐.

- 현재 공장에서는 종축돼지와 새끼돼지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앞으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돼지먹이 첨가제 생산기지과 수천 톤 능력의 현대적인 유기질비료공장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높은 목표 하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집짐승 사양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8.20)

- 올해에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운 구성시 남산축산전문 협동농장 축산분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집짐승 사양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 집짐승별 습성과 생리적 특성에 맞게 집짐승 사양관리 일과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실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관리공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사양관리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관리공의 경험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분장에서는 또한 방역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한 마리의 집짐승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먹이작물에서도 종자가 기본(로동신문 8.29)

- 김정일은 “고기생산을 늘리자면 무엇보다도 먹이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함.
- 태천청년 토끼종축장에서는 자주꽃자리풀과 왕사라구 등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여러 가지 먹이작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먹이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음.
- 주목되는 것은 종축장에서 자주꽃자리풀을 많이 심는 것임. 자주꽃자리풀은 정보당 수확고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단백질 함량이 많음. 종축장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자주꽃자리풀을 여러번 수확하여 먹이로 이용하는데 한 정보에서의 수확량이 백수십톤에 달함.

○ 개건된 강서돼지공장 준공식(로동신문 9.23)

- 강서돼지공장 준공식이 9월 22일 진행되었음. 리태남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고명희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준공식에 참가하였음.
- 강서돼지공장에는 종축사, 비육사, 먹이창고, 먹이가공장, 고기가공장 등 기본 생산

건물과 보조건물이 번듯하게 건설되었으며,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조종되도록 설계되었음.

- 또한 공장 구내에는 갖가지 과일나무와 수천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위생문화적 환경도 잘 보장되어 있음.

○ 풀먹는 집짐승을 더 많이(민주조선 9.27)

- 김정일은 “인민들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내밀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라고 말함.
- 동신군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일꾼들과 근로자에게 선전하면서 모든 단위와 가정에서 실정에 맞게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도록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풀먹는 집짐승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일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앞선 사양관리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음.
- 백산협동농장에서는 풀판면적을 늘리고 염소종자를 개량하면서 그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염소마리수를 수천마리로 늘리었음. 금석, 문화협동농장에서는 염소와 양, 토끼는 물론 소 기르기에도 힘을 넣고 있음.

□ 염소

○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염소 기르기(민주조선 7.16)

- 김정일은 “염소만 잘 길러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
-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우량품종의 염소생산에 힘을 넣어 마리수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함. 또한 기술 강습을 자주 조직하고 먹이가공을 위한 선진기술과 경험을 널리 받아들여 염소의 증체율과 젖생산량을 높이고 있음.
- 은정축산전문 협동농장에서는 과학자, 기술자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우량품종의 새끼 염소 생산체계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먹이풀 품종을 선택하고 비배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1,000여 정보의 풀판과 수십 동의 살림집, 고기 및 젓가공장, 먹이가공장, 먹이창고 등을 갖춘 강계목장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염소 기르기 활발(로동신문 7.22)

- 각지에서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염소 기르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청진염소목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염소종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풀판을 조성하고 염소 기르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실적을 내고 있음.
-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우량품종의 염소생산에 힘을 넣어 마리수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전망을 열었음.
- 은정축산전문 협동농장에서는 과학연구기관 과학자, 기술자들의 긴밀한 연계 하에 우량품종의 새끼염소 생산체계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합리적인 먹이풀 품종을 선택하고 비배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안북도, 황해북도, 평양시 안의 축산기지에서는 이미 마련해 놓은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영양가 높은 젓가공품 생산을 늘리고 있음.

□ 토끼

○ 토끼 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로동신문 9.5)

- 김정일은 “토끼 기르기는 공장과 농장, 개인세대를 비롯하여 토끼를 기를 수 있는 모든 단위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해야 한다”, “토끼는 풀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기를 수 있는 실리가 매우 큰 집짐승이다”라고 말함.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10년 전부터 직장에서 토끼 기르기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직장에서는 구내의 가까운 곳에 토끼우리를 공들여 꾸려놓고 토끼 기르기를 활발히 시작하였음.
- 또한 직장에서는 빈 땅을 찾아 콩농사를 하여 노동자에게 콩을 공급하고 콩짚과 강냉이짚, 가을남새 부산물을 모조리 거두어들여 말렸다가 토끼의 겨울철 먹이로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직장의 토끼 기르기 경험은 온 기업소에 적극 일반화되고 있음.

○ 태천청년 토끼종축장에서(로동신문 8.29)

- 태천청년 토끼종축장에는 겨울철에 새끼토끼를 생산할 수 있게 겨울철 새끼낳이실을 따로 꾸렸음. 온도를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관리도 잘 되어 있어 겨울철 새끼토끼 생산이 오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먹이가공기지도 훌륭하게 건설해 놓았음. 분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거두어들인 곡식짚과 물, 낱새부산물 등이 영양가 높은 먹이로 가공되고 있음.
- 더불어 토끼의 질병치료에 좋은 여러 가지 약을 자체로 마련하여 수의방역사업에 이용하고 있음. 종축장 주변 산에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이 토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짐에 따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토끼 기르기를 군중적으로(로동신문 9.5)

- 김정일은 “토끼 기르기는 공장과 농장, 개인세대를 비롯하여 토끼를 기를 수 있는 모든 단위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10년 전부터 직장에서 토끼 기르기를 시작하였음. 처음에는 직장 구내에 토끼를 기를 적합한 곳이 없는데다 토끼를 기른 경험도 없어 난관이 매우 많았음.
- 하지만 직장에서 구내 가까운 곳에 토끼우리를 꾸려놓고 가공먹이보장을 함에 따라 토끼마리수가 부쩍 늘기 시작하였음. 게다가 수의방역실, 먹이가공실, 먹이창고까지 갖추에 따라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토끼를 많이 길러 덕을 본다(민주조선 9.14)

- 김정일은 “사회적으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연산군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소에서는 토끼우리를 건설하고, 수의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조성하여 해마다 많은 토끼를 길러내고 있음. 또한 우량품종의 새끼토끼와 토끼고기를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종업원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음.

○ 토끼 기르기를 끈기 있게(민주조선 9.18)

- 양덕군에서 토끼 기르기를 끈기 있게 실행하고 있음.
- 은하, 온정협동농장에서는 토끼우리를 잘 만들고 우량품종의 토끼를 많이 사육하

고 있음. 또한 풀판조성을 잘 해나가고 있음.

-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와 근로자의 가정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군양정사업소와 장공장에서는 토끼우리를 잘 만들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하도록 힘쓰고 있음. 동시에 수의방역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새끼토끼 생산을 정상화(민주조선 9.20)

- 천내군 로운협동농장에서 새끼토끼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토끼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토끼관리를 맡은 농장원은 토끼의 영양관리에 힘쓰면서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토끼우리를 매운재, 석회석, 불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토끼의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먹이를 일정하게 말려 주는 등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음.
- 특히 갓 낳은 새끼토끼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실시하여 새끼토끼의 사름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토끼 기르기를 군중적으로 실속 있게(로동신문 9.25)

- 회령구두공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기 위한 당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토끼 기르기를 실시하고 있음.
-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많은 토끼를 기를 수 있게 새로운 토끼 호동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짧은 기간 안에 토끼 호동을 훌륭히 건설하였음.
- 또한 토끼 마리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먹이보장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포착하여 직장, 작업반 별로 분쇄기, 성형기 등 설비를 만들어 놓고 가공먹이를 생산하여 토끼의 영양을 더욱 좋게 하고 있음.

○ 우량품종 확보에 큰 힘을(민주조선 10.9)

- 장강군에서는 토끼 기르기가 군중적으로 활발히 벌어져 그 덕을 보고 있는데 이는 토끼 종축장을 잘 운영하여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과 큰 연관이 있음.
- 종자가 좋은 새끼토끼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동시에 수의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세워놓고 토끼우리에 대한 소독과 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토끼가 병에 걸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또한 먹이가공실을 잘 꾸려놓고 콩깨묵과 소금, 쌀겨, 풀가루, 첨가제 등을 섞어 질 좋은 토끼먹이를 생산하여 이용해야 함.

□ 닭

○ 고기와 알 생산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로동신문 7.17)

-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관한 관심 하에 홍주 닭공장에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닭사양관리를 개선함으로써 고기, 알 생산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음.
- 홍주 닭공장의 일꾼, 종업원들은 종금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사양관리와 수의방역사업, 먹이보장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음. 또한 매 호동의 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냉각장치와 배풍장치를 개조하여 필요한 온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 공장에서는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된 고기와 알을 주민세대에 제때에 보내주고 있음.

○ 고기와 알생산을 정상화(민주조선 9.3)

- 홍주 닭공장에서는 생산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 기술자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적극 발동하여 닭사양 관리를 개선하여 알낱이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냉각장치를 개조하여 호동 안에 설치함으로써 호동의 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 또한 배풍장치를 개조하여 호동 안의 일정한 구간마다 더 설치하여 필요한 온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또한 자체의 힘으로 실정에 맞는 먹이첨가제를 받아들이고 대용먹이생산을 위한 공정을 실시하여 동물성, 식물성 단백먹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계절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닭우리를 정상적으로 소독하고 있음.
- 먹이가공직장의 노동자는 품종별로 다른 먹이처방에 따라 닭먹이 배합을 정확히 구분하여 먹이가공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돼지

○ 강계돼지공장 조업(로동신문 9.4)

- 종축사, 육성사, 비육사, 고기가공장, 먹이가공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설비로 꾸려진 강계돼지공장이 조업함으로써 많은 고기를 생산하여 인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조업식은 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박도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기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남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음.
- 박도춘 책임비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우량종 새끼돼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수의방역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한편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음.

○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9.15)

- 강계돼지공장에서는 돼지 기본 먹이와 함께 칩을 비롯한 풀들을 채취하여 덧먹이로 이용하면서 돼지의 영양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이와 함께 돼지우리 소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수의방역사업에도 힘을 집중하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고려약도 만들어 이용하고 있음.
- 공장의 일꾼들은 현지학습반을 조직하여 관리공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장기술일꾼들과의 기술합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수의약품과 수의기구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새끼낳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부림소

○ 부림소를 관리하여 농사에 적극 이용하자(로동신문 8.8)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부림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함.
- 동신군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 부림소를 많이 길러 농사일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농장일꾼이 부림소 기르기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약수, 서양, 석포, 동흥협동농장에서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동신군에서는 소우리와 송아지 생산정형, 먹이문제 등 소 기르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고 있음. 또한 부림소관리에서 제기되는 위생학적 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있음.
- 군과 리의 축산일꾼들은 부림소 마리수를 적극 늘리고 송아지를 비롯한 소의 영양관리를 잘하는 한편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수의방역

○ 자체로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로동신문 7.10)

- 김정일은 “축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수의방역사업이다”라고 말함.
- 수의방역사업에서 기본은 예방임. 염소를 무리로 기르는 조건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방역대에서는 수의방역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매개 염소우리에 대한 관리와 호동과 야외 놀이장,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 더불어 약 생산을 늘리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방역대에서는 더 많은 약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약초 캐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방역대에서는 방목지 안의 적합한 땅을 찾아 가는 곳마다에 약초밭을 조성하고 많이 쓰이는 약초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도, 둘째도 수의방역(민주조선 10.9)

- 축산업 발전에서 수의방역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따라서 집짐승의 병을 철저히 막는 것은 축산물 생산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임.
- 축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단위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 언제나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집짐승병이 생기거나 퍼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함.
- 수의방역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수의위생검사를 잘하는 것임. 집짐승에 대한 검사에서는 특히 전염병과 기생충병에 대한 검사를 잘해야 함. 또한 집짐승우리와 풀판 등 주변환경을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여러 가지 효능 높은 의약품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함.

6. 농업기반

- 농업성에서는 미루벌물길 건설 완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지 농촌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중소규모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큰물 피해를 막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하여 강하천관리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도로건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물길공사

- 자연흐름식 수도화 훌륭히 실현(로동신문 7.13)
 - 벽성군에서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를 완공하여 읍지구의 수천세대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먹는 물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게 됨.
 - 공사기간 군의 일꾼들은 주민들 속에 들어가 모두가 내부예비탐구 동원사업에 한결같이 참여하였음. 이러한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가 완공될 수 있었음.
-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에 큰 힘을(민주조선 8.22)
 - 농업성에서는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미루벌물길 건설을 성과적으로 마치도록 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쏟고 있음.
 - 또한 각지 농촌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음. 잠진-대보지선 물길을 비롯한 중요 물길건설 대상을 옹계 선정하고 여기에 주된 힘을 쏟도록 하고 있음.
 - 성에서는 건설대상별로 필요한 자재량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 있게 세우고 있음.
- 자연흐름식 물길을 건설(로동신문 9.22)
 - 김정일은 “우리는 자연흐름식 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

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해야 한다”고 말함.

- 농업성에서는 당의 영도 하에 개천-대성호물길, 백마-철산물길을 본보기로 하여 여러 곳에 중소규모 자연흐름식 물길을 건설하고 있음.
- 청단군에서는 지난해 착공하였던 공사에 힘을 넣어 4월에 수천정보의 논밭을 적실 수 있는 물길을 완공한데 이어 또다시 천수백 정보의 논을 적실 수 있는 새 물길을 군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하였음. 그리하여 군안의 많은 경지면적에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원만히 대주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전기도 절약하여 국가에 큰 이익을 주었음.
- 평안남도에서도 잠진-대보물길 1단계 공사를 올해 모내기 철전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이 지역 많은 면적의 논에 물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게 하였음.
- 평안북도에서는 시, 군별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대상을 확정하고 내밀어 연 160리의 물길을 완공하여 수천정보의 논에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특히 염주군에서 18개 대상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계획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연이어 완공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음.
- 황해북도 연탄군에서는 3개 대상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음.

□ 국토관리사업

○ 강하천 정리를 잘한다(로동신문 7.20)

- 김정일은 “강하천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함.
- 고원군 군내 협동농장에서는 하천을 잘 다스려 큰물피해를 막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데 기초하여 사박천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높은 목표 하에 방대한 사박천제방 보강공사를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황송천 정리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10여 km 구간의 하천을 새로 정리(민주조선 7.26)

- 신평군 인민위원회에서는 무더기비와 큰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대홍천과 먹미천, 신평천 정리 사업에 힘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이룩함.

- 군에서는 10여 km 구간의 하천에서 3만여 m³의 강바닥흙을 파내고 5천여 m³의 장석 입히기를 진행하여 무더기비와 큰물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마철 전에 하천의 바닥파기와 제방쌓기 공사를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대계도 간석지 1호 방조제 공사 완공(로동신문 9.4)

- 이미 대계도 간석지 2호 방조제와 4호 방조제를 건설한데 이어 1호 방조제를 완공함으로써 전반적인 대계도 간석지 방조제공사를 앞당겨 끝낼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성과는 관리국에서 1호 방조제를 짧은 기간에 끝낼 담대한 목표 하에 모든 노동력과 수단을 총집중시킨 결과임. 또한 공사기간 동안 간석지 건설 지도국과 국가과학원,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완공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함.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 떨쳐나섰다(로동신문 9.23)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말함.
- 전국 각지에서는 도로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백수십 km구간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술상태를 개선하여 도로망을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량강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도로건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황해남도과 평안남도에서는 다리건설을 다그치면서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평안남도에서는 안주-개천 사이 도로포장공사가 한창임.
-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에서는 강하천 제방공사와 해안방조제 보수공사에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이와 더불어 나무모발 조성과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힘있게 전개(로동신문 9.30)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의 추진에 맞추어 가을철 국토관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지에 내려가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태탄군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의 중요대상으로 정해진 광탄다리건설과 호안 정리, 과산리 도로보수 등 공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서 앞장서나가고 있음.
- 해주-벽성 사이 신광천 정리작업 또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은률, 안악, 신천, 연안군 등에서는 농촌살림집과 도로를 일신시키는 것을 통해 국토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특히 송화군에서는 수천m의 남대천 정리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남대천제방 대보수공사 완공(민주조선 10.7)

-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사업에 나선 송화군에서는 남대천제방 대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였음.
- 이번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군 안의 주요도로와 철길, 수많은 농경지를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덕없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천 주변에서 15정보의 새 땅을 얻어 내어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군에서는 지난 시기 국토관리사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방공사에 필요한 돌을 미리 채취하고 군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음.
- 군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자만함 없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저수지

○ 저수지 방수로 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로동신문 8.17)

- 웅진군에서는 은동저수지 방수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큰물로부터 수많은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하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방수로 보수공사에 펼쳐나선 송월, 구량, 해방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방수로 바닥을 깊이 파내고 돌과 모래, 자갈을 나르면서 맑은 물을 해내었음. 이로 인해 저수지 방수로 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음.

7. 산 림

- 산림조성사업을 위해 나무심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무모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우량품종의 나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우량품종, 희귀품종의 나무를 대량증식시키기 위한 조직배양연구도 실시하고 있음.

□ 산림조성

○ 2천여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민주조선 8.1)

- 김정일은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방침이다”라고 말함.
- 단천시에서는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을 맞으며 시 안의 행정, 근로단체의 일꾼들로 하여금 나무심기 지휘부를 조직하도록 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시에서는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산림경영소와의 밀접한 연계 하에 나무 심을 구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시의 실정에 맞게 땔나무림, 혼성림, 종이원료림, 수유나무림을 비롯하여 2천여 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음.

○ 산림조성사업을 끈기 있게(민주조선 8.6)

- 북창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산림조성 사업에 힘을 쏟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송남, 연류, 인포, 룡포지구에 큰 양모장을 건설하고 정보당 80톤 이상의 거름을 내어 해마다 500여 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천수백 정보씩의 면적에 나무를 심었음.
- 또한 평양포플러 나무,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심어 현재 군적으로 동발나무를 포함한 각종 나무를 해마다 수백㎡씩 생산해내어 석탄생산과 인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산림경영소에서는 산림감독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산림보호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산림을 전망성 있게(민주조선 8.8)

- 김정일은 “산림을 조성하고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서도 먼 앞날을 바라보고 후대를 생각하며 전망성 있게 잘해야 한다”고 말함.
- 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빨리 자라고 재질이 좋으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큰 좋은 수종의 나무를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완성된 우량품종의 나무를 짧은 기간에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음.
- 또한 도의 기후풍토에 맞는 단나무와 비타민나무, 우량품종의 기름밤나무를 널리 번식시켜 산에서 귀중한 약재와 먹는 기름을 해결하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게 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척시키고 있음.
- 연구소에서는 조직배양공정이 훌륭하게 꾸려진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자, 기술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부단히 받아들여 우량품종, 희귀품종의 나무를 대량증식시키기 위한 조직배양연구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나라의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증식시켜나갈 불타는 열정(로동신문 8.16)

- 김정일은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관리 하여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말함.
- 자강도에서는 임업발전에 기후,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토대로 산림조성 사업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고 있음. 순환식 채벌원칙을 철저히 지켜 산림자원 조성 및 채벌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임업을 빠른 시일 안에 발전시켜 도의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임산물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도의 기후풍토에 맞게 순화시켜 대대적으로 심음으로써 산림자원을 더욱 늘려나가는 것이 자강도 산림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목표임.

○ 성과를 내는 양묘기지(민주조선 9.17)

- 김정일은 “도, 시, 군을 비롯하여 해당 단위에서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 비배관리를 잘하여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양묘직장의 과학기술지식 선전실에서는 나무모를 튼튼히 키우기 위한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전문학교 학생들의 현지이동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양묘장 입구에 위치한 2호 포전에는 새품종의 포플러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35종의 나무모가 1만 그루나 자라나고 있음. 그 옆에 자리 잡은 3호 포전과 4호 포전을 비롯한 여러 포전에서는 임흥 포플러나무와 창성 이깔나무, 평양 단풍나무와 잣나무, 세잎소나무와 수유나무 등 수백만 그루에 달하는 여러 수종의 나무가 즐비하게 꽂 들어차 있음.

□ 나무모

○ 나무모발 가꾸기(로동신문 7.18)

- 나무모를 키우는 것은 수림화, 원림화의 첫 공정임.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는 나무모발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 나무모발 물대기를 우선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나무모발 물대기는 나무모발 토양의 종류와 물기에 대한 나무모 종류별 요구량에 맞게 해야 함.
- 또한 어린모 솟아주기와 김매기 작업을 잘해야 함.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함. 김매기는 짝이 튼 다음 김이 나오기 전에 흙을 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더불어 나무모밭에서 병해충 예찰과 예방사업을 잘해야 함. 나무모마름병, 잎녹병 등 병해충 예찰사업을 잘하여 발생 초기에 없애야 함.
- 숲사이 나무모밭에 창성이깔 나무모를 해마다 심는 경우에는 두 번째 해부터는 흙갈이를 해야 함.

○ 나무모 생산에 힘을 넣어(민주조선 8.20)

- 증산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는 군 안의 산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해 나무모 생산에 큰 힘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일꾼들은 산림조성을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바로 세우고 산림을 잘 조성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미 모체양묘장과 청산, 금송양묘장을 잘 꾸려놓은데 맞게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조림분조에서 수종별 나무모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에서 군중적으로 나무모 기르기를 벌려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게 하고 있음.
- 더불어 나무모발 비배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청산, 금송 양묘장에서는 앞선 나무모 기르기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통나무생산

○ 통나무 마감나르기를 다그친다(민주조선 7.17)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에서 나무를 많이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어놓은 나무를 제때에 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함.
- 낭림 림산사업소에서는 산지토장에 쌓아놓은 통나무를 나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소 일꾼들은 류별작업소에 나가 끝배와 림철기관차 수리정비를 잘하여 침목고체와 기중기 옮기는 작업 등 마감나르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또한 짧은 기간에 통나무 나르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양의 통나무를 끝배로 나르고 있음. 더불어 운행길에 따르는 앞선 운전조범을 받아들여 한통 더 신기, 한탕 더 뛰기를 활발히 벌려 나르기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 활발(로동신문 10.2)

- 김정일은 “임업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임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 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함.
- 임업성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를 위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아래 단위에 필요한 물자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일꾼을 현지에 내려보내어 생산준비를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에서는 량강도, 자강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임업관리국 안의 사업소, 작업소에서 앞장서고 있음.

8. 기타 작물

- 인민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가을남새 씨뿌리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자확보, 거름생산, 밭갈이 등이 진행되고 있음. 생산성이 높은 과일나무를 많이 생산하여 과일나무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와 대용농약을 통해 병해충을 막고 있음. 가을유채심기 또한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남새

- 주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민주조선 7.11)
 - 원산시 협동농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여름철 남새를 넉넉히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계단식 남새생산체계를 바로 세우고 당면한 여름철 남새 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봄 남새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낸 세길, 현동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이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여름철 남새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음.
 - 각 협동농장에서는 여름 남새에 대한 덧거름주기와 김매기도 실시하고 있음.
- 남새농사에 계속 힘을 넣자(로동신문 7.22)
 - 김정일은 “가을남새농사도 잘 지어야 한다”고 말함.
 - 남새는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이며, 가을남새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함.
 -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남새 씨뿌리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함. 농업부문 일꾼들은 협동농장에 내려가 씨뿌리기 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해야 함.

- 또한 가을남새 적지선정과 품종선택,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정하고 무우 씨뿌리기와 영양단지 만들기, 배추씨 넣기를 기술규정대로 꼼꼼히 해야 함.
- 더불어 남새밭과 영양단비 모판이 무더기비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밭둘레의 물도랑치기와 모판두둑짓기를 잘하여 모판에 씨울 박막준비도 빈틈없이 해야 함.

○ 가을남새 심기 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7.25)

- 청진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가을남새밭 면적을 명확히 확정하고 매개협동농장에 내려보낸 후 그 준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남새 심기 준비를 위해 종자확보, 거름생산, 밭갈이 등 부문별로 분담사업을 진행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보여주기를 봉암협동농장에서 진행하였음. 이에 기초하여 일꾼들을 시 안의 모든 협동농장에 내보내 가을남새 씨뿌리기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성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남새생산을 늘리기 위해(민주조선 8.2)

- 김정일은 “남새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새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말함.
- 강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시 안의 남새밭 관수체계를 새롭게 하여 남새생산을 훨씬 늘릴 수 있게 하였음. 여기에는 야학, 홍주, 석현, 고영협동농장이 앞장서고 있음.
- 야학, 홍주협동농장에서는 남새온실재배, 온상재배와 계단식재배 방법을 널리 받아 들여 많은 남새를 생산하고 있음.
- 석현, 고영, 공인협동농장에서는 포전의 지형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새밭에 물을 충분히 주어 남새생산을 늘리고 있음.

○ 가을남새 농사에 큰 힘을(민주조선 8.6)

- 혜산시에서는 근로자에게 여러 종류의 남새를 넉넉히 공급할 목표 하에 가을남새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배추, 무우 등 가을남새를 제철에 질적으로 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농장의 일꾼들은 가을남새 생산의 중요성을 농장원들에게 인식시키며 남새 모판 만들기와 씨뿌리기를 지도하고 있음.
- 제 5작업반 농장원이 가을남새 농사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제 4작업반에서도 가을남새 농사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제때에(민주조선 8.20)

- 평성시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당면한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제철에 완성하기 위한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위원회 일꾼들은 자신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시안의 협동농장에 나가 품종의 특성과 토양조건, 날씨 등에 맞게 씨뿌리기를 제때에 하도록 하고 있음.
- 삼화, 백송, 하단협동농장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매일 가을남새 씨뿌리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특히 삼화협동농장에서는 남새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시 안의 주민들에게 김장용 남새를 넉넉히 보장해줄 결의 하에 일을 해나가고 있음.
- 백송협동농장에서는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마철 조건에 맞게 앞그루 농작물을 수확하는 족족 밭을 간 다음 이랑, 두둑을 지어놓고 씨뿌리기를 다그치고 있음.

○ 적기를 놓치지 않고(민주조선 8.22)

- 금천군 월암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씨뿌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남새포전에 거름내기와 밭갈이, 종자준비 등을 빈틈없이 하였다가 적기를 놓치지 않고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실시하고 있음.
- 제 1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에서는 가을남새 씨뿌리기 일정목표를 높이 정하고 노동력을 집중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제때에 빠질 수 있는 곳에 모판을 만들어 씨뿌리기를 다그치고 있음.

○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시작하여(민주조선 9.21)

- 강계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가을남새 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음.
- 일꾼들은 작업반, 분조에 나가 남새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포전별, 날짜별로 남새밭에 물주기 계획과 김매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가뭇이 들지 않

게 물을 넉넉히 대주면서 김매기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고 있음.

- 야학협동농장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을남새를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더불어 무우와 배추를 비롯한 남새밭에 비료와 덧거름주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향노, 두흥협동농장에서도 트랙터와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실어 들인 진거름을 남새밭에 충분히 주고 있음. 동부협동농장을 비롯한 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자체로 대용농약을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남새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가을남새를(로동신문 9.23)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수도시민에게 김장용 남새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주변 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가꾸기를 잘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음.
- 시주변 협동농장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배추와 무를 비롯한 가을남새 모 옮겨심기와 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었음.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가꾸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현지에 내려간 시농촌경리위원회 일꾼들은 가을남새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농업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또한 남새밭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관수설비도 수리정비하고 있음.
- 가을남새 가꾸기에서는 사동구역과 락랑구역, 력포구역이 앞장서고 있음. 가을남새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위한 사업은 만경대구역과 강남군을 비롯한 다른 구역,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알심있게(민주조선 9.28)

- 배추모 옮겨심기와 무우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성천군 장립협동농장에서는 가을남새 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올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당면한 남새밭 가꾸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남새작업반에 나가 인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남새농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김매기와 비료주기, 병해충 피해막이를 비롯한 남새밭 가꾸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잘 알려주어 가을남새 비배관리에서 성

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새 제1작업반에서는 여름 남새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이어받아 가을남새 비배관리 또한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 제2, 4분조에서는 포기마다 덧비료를 충분히 주어 생육상태가 날마다 더 좋아지도록 하고 있음.

□ 과수

○ 첫물과일 도착(로동신문 7.12)

- 수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백 톤의 복숭아를 실은 수송대가 평양에 도착함.
- 이 과일은 시 안의 탁아소, 유치원과 상업봉사망으로 향함.
- 첫물 복숭아는 열차로도 계속하여 들어오고 있음.

○ 수백만 개의 사과열매에 종이봉지를(민주조선 7.12)

- 김정일은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함.
- 고산과수농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에 종이봉지를 정성껏 씌워 과일나무 비배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고 생산되는 과일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일꾼들은 수백만 개의 종이봉지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씌우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과일나무 비배관리에서 작업의 선후차를 정하여 모든 일을 적기에 진행해 나가고 있음.
- 직속 분장의 제 3, 4, 12작업반을 비롯한 분장의 모든 작업반원들이 한 알의 과일이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음.

○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에 큰 힘을(민주조선 7.16)

- 과수연합총회사에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산성이 높은 품종의 과일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여 과일나무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해 총회사에서는 조직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무모 생산체계가 큰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음.

- 또한 관련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나무모 생산지에 생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영농자재와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음.
- 과수농장에서는 자체의 나무모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있으며, 적지를 골라 나무모밭을 더욱 늘리며 그 지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음.

○ 과일향기 넘치는 청춘과원(로동신문 8.26)

- 김정일은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품종을 선택하여 과수원을 조성해야 과일생산을 빨리 늘릴 수 있다”고 말함.
- 삼천 과수농장에서는 실정에 맞는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음. 이를 위해 키낮은 사과나무밭에 정보당 100톤의 질 좋은 거름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 밤과 낮으로 부림소를 이용하여 질 좋은 거름을 나르고, 품을 들여 과수밭을 가꾸어 삼천과수농장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키낮은 사과나무밭 면적이 늘어나고 있음.

○ 사과 수확이 한창(민주조선 10.2)

- 고산과수농장에서는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103% 넘쳐 수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분발하여 늦품종 과일을 허실없이 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 면적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과일나무 모양잡기와 유기질비료주기, 김매기와 농약뿌리기 등 과일나무 비배관리에 힘을 넣고 있음.
- 부평, 광명분장을 비롯한 여러 분장, 작업반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자체로 대용농약을 생산하여 14회나 뿌려줌으로써 병해충을 철저히 막아내고 과일나무마다 실한 열매가 열리도록 하고 있음.

□ 유채

○ 유채를 많이 심는다(민주조선 9.19)

- 김정일은 “두벌농사 앞그루로 유채도 심어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에서는 가을 유채심기에 노동력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유채심기에서는

강령군과 웅진군이 앞장서고 있음.

- 웅진군에서는 유채심을 적지를 옹게 선정한데 그치지 않고 밭에 질 좋은 거름을 듬뿍 내고 밭갈이를 적극 앞세우면서 씨뿌리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신천, 안악, 청단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에서도 가을유채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고구마

○ 신계 고구마 가공공장 조업(민주조선 8.6)

- 8월 5일 신계 고구마 가공공장이 완공되어 조업함으로써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조업식에는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주오 경공업상, 관계부문 일꾼과 건설자가 참가하였음.
- 공장의 일꾼들은 설비와 시설물, 원료기지를 잘 관리운영하고 기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질 좋은 고구마 가공품을 인민에게 많이 생산공급할 것을 다짐하였음.

9. 기타 보도 동향

- 화학비료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름철 풀베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 각 협동농장에서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근원을 미리 찾아 없애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가을걷이, 낱알털기 시기에 농기계, 농기구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기계, 농기구 수리정비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화학비료만 이용해서는 지력을 높일 수 없다는 인식하에 대용비료, 유기질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장마철 대비대책 또한 철저히 세우고 있음.

□ 풀베기

○ 풀베기를 힘 있게(로동신문 7.12)

- 7월 11일 풀베기를 힘 있게 벌리기 위한 송화군 구탄협동농장 농업근로자 모임이 진행됨.
- 보고자, 토론자들은 농장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풀베기가 곧 거름생산이고 거름더미가 곧 쌀더미라는 것을 명심하고 풀베기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풀베기는 모든 영농공정과 마찬가지로 철을 놓치지 말아야 함. 따라서 풀원천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면밀한 타산 밑에 역량을 집중하여 유기질 함량이 많은 최적기에 대대적으로 풀베기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 풀베기를 제철에(로동신문 7.15)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함.
- 풀베기를 제때에 하여 유기질 비료생산을 늘려야 논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음. 풀베기는 모든 영농공정과 마찬가지로 철을 놓치지 말아야 함.
-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에 과제를 정확히 주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 또한 트랙터,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으며, 예비부속품을 미리 마련하여 수리점검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중적으로 펼쳐나 풀베기전투를 본때 있게(로동신문 7.16)

- 김정일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땅을 갈구자면 밀보리짚도 이용하고 풀베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다음 해에 쓸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백만 톤의 풀을 베어들일 목표를 세우고 모든 시, 군에서 풀베기 전투를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휘하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 세대별 풀베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농업근로자들이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특히 풀베기와 김매기가 겹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베어낸 풀을 그날로 운반하여 퇴적장에 쌓게 하고 있음.
- 벽성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풀을 많이 베어들이는 동시에 논밭의 최뚝, 수로뚝의 풀도 놓치지 않고 원천을 모두 찾아내어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민주조선 7.18)

- 김정일은 “풀베기운동을 널리 벌려 거름을 많이 장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위원군에서는 올해에 풀거름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풀거름을 많이 장만해야 논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소출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화창협동농장에서는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켜 그날 베어낸 풀은 그날로 실어들이게 하고 있으며, 집짐승 우리에 밟혀내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어곡협동농장에서는 산지를 밟으면서 풀판에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풀베기를 힘 있게 다그치자(민주조선 7.18)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함.
- 풀을 많이 베어 유기질 비료생산을 늘리는 것은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각지 농촌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이용하면서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

하여 당면한 풀베기를 힘 있게 하고 있음.

- 풀베기에도 적기가 있음. 풀이 왕성하게 자라고 그 속에 질소함량이 높은 때가 바로 7, 8월임. 협동농장에서는 적기를 놓치지 말고 많은 풀을 베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또한 풀거름을 질적으로 생산해야 함.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질 좋은 풀거름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풀베기 전투에서 혁신(로동신문 7.20)

- 수안군 좌위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풀베기전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하루과제를 정확히 주어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 7작업반원들은 유기질 함량이 많은 풀을 베자면 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풀씨가 익기 전에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일 목표를 세우고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적기를 놓칠세라(민주조선 7.22)

- 화평군 중흥협동농장에서는 각 작업반, 분조, 농가에 풀베기 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 관리위원회에서는 산기슭과 포전 주변, 집짐승우리 주변에 수십 톤 능력의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풀베기를 하고 있음.
- 제 3작업반에서는 풀베기에 노동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수송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그날 베은 풀은 그날로 운반하여 퇴적장에 쌓고 있음. 제 4작업반에서는 날짜별 풀베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7.23)

- 은파군 광명협동농장에서는 올해 1만 6,000톤의 풀을 베어들일 계획 하에 작업반, 분조, 세대에 이르기까지 풀베기 과제를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 2, 4, 7작업반에서 특히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이악하게 달라붙어 더 많은 풀을(민주조선 7.29)

- 은천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중소농기구를 충분히 준비하고 노동력을 풀베기에 집중시키면서 풀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도협동농장에서는 풀거름을 많이 장만해야 논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풀씨가 앞기 전에 풀베기 과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창협동농장에서는 각 농장원에게 풀베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풀베기에서 모범적인 농장원을 적극 소개하는 사업을 벌려 농장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하루에 10여만 톤의 풀을(로동신문 7.31)

- 평안북도 안의 농촌에서는 더 많은 풀거름을 생산할 높은 목표 하에 모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켜 최근들어 매일 10여만 톤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에 풀거름 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농촌의 모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부문 일꾼들을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여 질 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음.
- 구장, 녕변, 동창, 벽동군을 비롯한 중간 및 산간지대 협동농장에서는 풀베기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룡천, 박천, 선천군을 비롯한 별방지대 농촌에서도 풀베기에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풀베기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로동신문 8.4)

- 연안군에서는 논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리는데서 풀베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단위의 실정에 맞게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퇴적장의 규모와 위치를 바로 정하는 등 풀베기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오현, 정춘, 송호, 천태협동농장에서는 풀베기를 중요한 영농공장으로 인식하고 일꾼들이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풀베기 실적을 높이 올리고 있음.
- 삼송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 농사에 쓸 거름을 미리 넉넉히 장만할 목표 하에 풀베기 전투를 패기 있게 수행하여 매일 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풀베기를 전격적으로 다그친다(로동신문 8.7)

- 김정일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땅을 갈구자면 밀보리짚도 이용하고 풀베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함.

- 송화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풀베기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에 맞추어 모든 협동농장에서 노동력과 운반사업을 집중시키고 있음.
- 구탄협동농장에서는 그날 베어낸 풀은 그날로 퇴적장에 운반하여 소석회를 뿌리면서 쌓고 있음. 명례, 다암협동농장에서는 산이 많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풀베기를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음.
-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철을 놓치지 않고 유기질 함량이 많은 풀을 베어들이기 위해 작업반, 분조별 풀베기 과제를 정확히 주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풀베기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에 맞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의 퇴적장의 규모를 바로 정하고 풀거름 생산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풀베기에 계속 큰 힘을(민주조선 8.7)

- 평안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의 실정에 맞게 풀베기 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덕천시, 양덕군, 신양군에서는 풀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다음해에 농사를 잘 지을 목표 하에 풀베기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조직하고 있음.
- 양덕군, 신양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도 풀베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서군, 대안군, 남포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풀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노동력 사업을 추진하여 날마다 풀베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남포시 신령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날 베은 풀은 그날로 운반하여 잘 썩히고 있음.

○ 농장원의 열의를 높여(로동신문 8.10)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마다 1,000톤, 분조마다 500톤, 매 농장원 세대마다 20톤씩의 거름생산과제를 주고 작업반별, 분조별로 경쟁하도록 하여 농장원의 열의를 일으키고 있음.
-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풀을 베어들이기 위하여 모든 농장원이 그날 과제는 그날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적기에 더 많은 풀을(민주조선 8.24)

- 유기질비료를 많이 이용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맹산군 평지협동농장의 일꾼, 농업근로자들이 풀베기를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농장의 일꾼들은 벼 풀을 퇴적장에까지 운반하여 질 좋은 거름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하고 있음. 풀을 잘게 썰어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쌓고 흙매질도 착실하게 해놓도록 하고 있음.
- 일꾼들은 풀을 집짐승우리에 밟혀내기 위한 사업도 잘 추진하고 있음. 종축작업반에서는 풀을 집짐승우리에 밟혀내어 1,000톤, 500톤 규모로 큼직큼직하게 쌓아놓아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 병해충 예찰사업

○ 병해충 예찰사업을 강화(로동신문 7.9)

- 숙천군 운정농장에서는 병해충 예찰사업이 한창임.
- 농장에서는 포전마다 병해충 예찰초소를 만들고 병해충 예찰원의 역할을 높여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농장 일꾼들은 작업반에 내려가 병해충 예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해독성, 병해충을 막기 위한 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모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병해충 예찰사업을 추진하여(민주조선 7.10)

- 평원군 덕포협동농장에서 병해충 예찰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포전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병해충 예찰초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예찰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음.
- 기술일꾼들은 병해충의 종류와 식별방법 등 병해충 예찰사업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알려주고 있음.
- 농장의 작업반, 분조에서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작업반기술원, 논물관리공이 포전을 돌아보면서 병해충 예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민주조선 7.19)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병해충 피해가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함.
- 룡천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기술원을 위한 기술전습을 조직한데 이어 기술 학습을 진행하여 농장원이 병해충 종류와 나타나는 시기, 구제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찰예보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음.
- 작업반, 분조에서는 포전별, 필지별 특성에 맞게 예찰지점을 바로 정하고 경험 있고 책임성 높은 농장원을 예찰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병해충 예찰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음.
- 장진, 룡수, 로상 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과 남새밭 곳곳에 잠복소를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검사한 후 깨끗이 불태우고 있음. 또한 병해충이 나타나면 즉시 구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생물농약을 준비해 놓고 있음.

○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민주조선 7.23)

- 위원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장원에게 병해충의 생활습성과 예찰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미리 찾아내어 없애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화창, 어곡협동농장에서는 농장과 작업반기술일꾼, 분조논물관리공, 비료시비공들로 병해충 예찰조를 결성하고 포전을 돌아보면서 예찰예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고보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과 함께 마름병과 뿌리식물병 등 논벼 성장에 지장을 주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병해충 피해막이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7.24)

- 삼석구역 호남협동농장에서는 땅콩밭 세벌 배토작업을 끝내고 땅콩농사를 잘 짓기 위한 병해충 피해막이와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특히 기술일꾼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농장원이 병해충의 종류, 발생 시기 등을 잘

알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남새 제 1작업반에서는 밭에 예찰초소를 규정대로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로동신문 8.7)

- 평성시 백송협동농장에서는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시기, 병해충의 종류에 따르는 식물성 농약의 효과성을 농장원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논물관리공, 비료시비공과의 사업을 추진하여 약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실지 영농실천을 통하여 식물성 농약의 효과성을 체험해보도록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약생산능력을 더욱 높여 한해 농사에 필요한 식물성 농약을 이미 전부 마련해 놓았음.

○ 병해충 방지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8.9)

- 은률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병해충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 일꾼들은 협동농장에서 기후 변화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또한 실정에 맞게 예찰원을 경험 있는 농장원으로 배치하여 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운성협동농장에서는 병해충 예찰예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고려농약을 만들어 적극 이용하고 있음.
- 읍협동농장에서는 애써 가꾼 농작물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찰원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원이 포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징후들을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음.

□ 식량원조

○ 러시아, 식량제공(민주조선 7.9)

-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이 7일 열차를 통해 신의주에 도착하였음.
- 러시아가 식량을 제공한 것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음.

□ 농기계

○ 농기계와 농기구 수리정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8.27)

- 김정일은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와 이용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리정비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함.
- 각지 농촌에서는 올해의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트랙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와 농기구를 빈틈없이 수리정비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안악, 재령, 신원, 태탄군에서는 부속품 소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트랙터 수리정비를 제일 먼저 끝내었음. 또한 은률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평양시 락랑구역, 순안구역, 사동구역 농기구공장에서는 낱알털기가 시작되기 전에 협동농장에 <남농 1호> 탈곡기를 보내주기 위하여 탈곡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농기계 수리정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8.30)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시, 군, 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에 필요한 농기계수리정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의 해당 일꾼들은 도 안의 농기계 수리정비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하고 있으며, 가을걷이 시기가 다가오는데 맞게 시, 군농기계작업소에서 각종 부속품을 확보하여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 보내도록 하고 있음.
- 청단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률 높은 가을갈이용보습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으며 동시에 트랙터 수리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웅진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농기계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있음.

□ 비료

○ 흙보산비료 생산을 끈기 있게(민주조선 7.15)

- 김정일은 “이제는 화학비료만 가지고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고려약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함.

- 협동농장에 내려간 위원회 일꾼들은 포전을 직접 밟아보며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원료의 배합비율과 숙성온도 보장의 기술적 필요사항을 알려주어 농장원들이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영농공정별 농작물 비배관리에 쓸 흙보산비료량을 정확히 규정한데 기초하여 그 생산을 위한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실천하고 있음.
- 강안, 옥현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하에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농업생산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해나가고 있음.

○ 나날이 늘어나는 대용비료더미(민주조선 7.23)

- 김정일은 “논밭에 거름은 내지 않고 화학비료만 사용해서는 지력이 낮아져 알곡수 확고를 높일 수 없다”고 말함.
- 안악군 통산협동농장에서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대용비료를 생산이용하여 지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밭 정보당 20-30톤 이상씩 질 좋은 거름을 내어 포전을 기름지게 갈구어 놓았음.
- 대용비료생산에서는 제 6작업반이 앞장서고 있음. 이곳 작업반에서는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로 대용비료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제1, 3작업반에서는 알찬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좋게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유기질 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당면하여 쓸 대용비료를 포전으로 실어내고 있음.

○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민주조선 7.26)

- 량강도에서는 감자산지에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한 노력에 큰 힘을 쏟고 있음.
- 도에서는 농촌에서 덧거름을 유기질비료로 줄 수 있게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도 안의 노동자, 사무원들은 2차에 걸쳐 수백 톤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감자산지에 보내주었음. 또한 혜산시 안의 도급, 시급기관에서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도 안의 여러 감자산지에 보내주고 있음.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건설(민주조선 9.6)

- 사리원시와 곡산군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준공식은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꾼, 공장 종업원, 근로자가 준공식에 참가하였음.
- 보고자는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는 것과,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건설(로동신문 9.13)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여러 가지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건설에서는 황해북도가 앞장서고 있음. 사리원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시, 군에서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황주군에서는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시작한 경험에 기초하여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의 실정에 맞는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실리적으로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강계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건설을 완공한 성과에 기초하여 다른 시, 군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진행(민주조선, 9.18)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이 개성시에 건설되어 준공하였음. 이로 인해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준공식은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원이 준공사를 하였음.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건설(로동신문 10.2)

-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이 개성시에 건설되어 준공됨에 따라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원과 공장 종업원,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음.

□ 살림집

○ 전기화된 새 농촌마을이 늘어난다(민주조선 8.19)

- 김정일은 “살림집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자강도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시, 군의 협동농장에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을 건설할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강계시와 만포시, 장강군, 초산군, 성간군, 화평군이 살림집 건설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음.
- 강계시에서는 일꾼들이 앞장서서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에 따라 은정협동농장, 동부협동농장에 수십 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었음.
- 장강군에서는 시멘트와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자체로 해결해나가면서 군건설역량을 집중하여 살림집 건설을 서두르고 있음. 그리하여 읍협동농장, 장평협동농장 소재지 마을에 농촌살림집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하였으며, 종포협동농장 살림집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초산군, 성간군, 우시군에서는 일꾼들이 건설현장에 직접 나가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면서 쓸모 있고 현대적 미감에 맞는 농촌살림집을 건설하고 있음.

○ 남신의주 지구에 500여 세대의 살림집 새로 건설(민주조선 9.5)

-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많이 지어주어야 한다”고 말함.
- 이의 일환으로 남신의주 지구에 500여 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었음. 새로 건설된 살림집은 2칸, 3칸 짜리로 살림방, 부엌, 거실, 창고, 세면장 등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 있음.

□ 장마철대비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7.11)

- 김정일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함.
- 장마철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수단을 집중해야 함. 김매기를 비롯한 농작물 가꾸기를 일정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한명의 노동력과 한가지의 수단이 라도 더 많이 사업에 돌리도록 해야 함.
- 또한 고인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물 이 많이 고일 수 있는 곳에 알맞은 능력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임의의 시각에 돌릴 수 있게 해야 함.
- 무더기비로 인한 토지와 시설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실시해야 함. 자체의 실정에 맞게 큰물에 의해 부침땅이 유실되거나 시설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함.
- 더불어 농작물 비배관리를 잘하여 벼와 강냉이 등 농작물이 비바람에 의해 넘어지 지 않게 해야 함.

○ 그 어떤 큰물에도 끄덕없게(로동신문 7.14)

- 지난해 대동강 유역에는 유례없는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황이 조성됨.
- 해당 부문의 계산에 의하면 지난해에 내린 무더기비로 대동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 은 평양이 큰물피해를 입었던 1967년보다 수십 mm나 더 많았다고 함.
- 대동강 큰물지휘부에서는 지난해 장마철의 경험에 기초하여 그 어떤 무더기비가 내려도 대동강물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일꾼들은 대동강에 위치한 여러 발전소 언제와 갑문을 맡고 내려가 장마철 운영준비 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있음. 또한 모 든 저수지와 갑문에서 큰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공급체계를 합리적으 로 구성하고 있음.

○ 그 어떤 큰비가 내려도 끄덕없게(민주조선 7.17)

- 김정일은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가물다가도 무더기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함.
- 어랑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의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큰물 대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그리하여 짧은 시일 안에 군 안의 천수백 정보에 달하는 강냉이 밭 물도랑치기를 끝냈으며 콩밭을 비롯한 여러 곡종의 밭에서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마감 단계에 들어섰음.
- 정평군에서는 강하천 제방뚝 보강정비와 배수로 가시기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군 관개관리소에서 고인물 빼기 양수장과 배수갑문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문봉, 문흥 협동농장에서는 한포기의 곡식도 큰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게 배수로를 깊이 짜주어 물이 쪽쪽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로동신문 7.19)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장마철의 무더기비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실시하고 있음.
- 수풍발전소, 태천발전소에서는 제때에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문과 권양기 점검 보수를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발전설비와 변전설비를 정비하여 전력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이 현지를 밟으면서 위험 장소를 직접 파악하고 해당 단위에서 이를 짧은 기간에 보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저수지와 구조물, 물길을 보수정비하면서 60여 개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100여 리에 달하는 해안방조제를 보강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압록강 하류제방, 운전군 대오리제방, 신의주시 하단리제방에서는 제방이나 강기슭으로 물이 쓸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음. 또한 무더기비와 산사태에 의하여 도로가 못쓰게 되지 않게 위험개소에 보호벽체를 쌓고 다리와 구조물을 보강하고 있음.

○ 큰물피해 방지사업을 군중적으로(로동신문 7.21)

- 김정일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라고 말함.
- 각지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은 저수지, 양수장, 관개구조물, 해안방조제, 배수갑문 등 큰물피해 위험장소를 확정한테 기초하여 해당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농업성에서는 책임적인 일꾼들로 지휘부를 꾸리고 큰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지휘부에서는 이미 조사된 큰물피해 위험 장소에 일꾼들

을 내려보내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

- 각 성에서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더불어 장악, 총화사업, 보장사업도 실시하여 각 농촌에서 이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 큰물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하여(민주조선 7.22)

- 장마철인 요즘 각지 농촌에서는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음.
-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실정에 맞게 경제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장마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이를 위해 배수용 물길정리와 설비보수에 깊은 관심을 돌려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조직하고 있음. 또한 농작물 비배관리에 대한 기술지도에도 큰 힘을 쏟고 있음.
- 함경남도에서는 저수지와 하천제방을 든든히 보강하기 위한 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로동신문 7.24)

- 강원도에서는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작물과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도에서는 해당 부문 일꾼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일꾼들이 현지에 내려가 농작물이 비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각 시, 군책임일꾼은 저수지와 물길상태, 배수설비상태, 포전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바람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원산시에서는 바다가 주변 협동농장에서 그 어떤 비바람과 큰물, 해일에도 끄덕없이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제방쌓기, 배수로 정리 등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7.25)

- 농업성에서는 무더기비가 내리기 전에 불비한 관개구조물을 시급히 정비보강하고 고인물 빼기용 설비보수와 물길정리를 다그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초하여 성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실정에 맞게 큰물과 비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 있게 세우고 있음.
- 성에서는 아래 단위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세우고 있는 대책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각지 농촌에서 큰물과 비바람으로부터 농작물과 부침땅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 있게 조직하고 있음. 배수물길의 운영실태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물길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더불어 장마철 날씨 조건에 맞게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아랫단위에 정확히 내려보내 애써 지은 곡식이 비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방지 사업 힘있게 전개(민주조선 7.30)

- 함경남도에서는 일꾼들이 장마철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빠짐없이 파악한 데 기초하여 모든 노동력과 룬전기재를 동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원군에서는 자체의 노동력과 수단으로 덕지강제방 보수공사를 끝냈으며 북청군에서는 북청강호안공사를 하여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큰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음.
- 신흥군, 정평군, 영광군 등 여러 군에서는 강하천정리와 배수로 켜기. 도로보수정리 사업을 결속하고 있음. 또한 장진강발전소, 금진강의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생산단위에서는 장마철에 큰물과 번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있음.

○ 큰물 방지대책을 면밀히(로동신문 8.2)

- 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 중평남새농장에서는 큰물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
- 농장에서는 지난해 큰물피해를 입은 하천제방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고인물을 제때에 빼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음.
- 제 10, 6 작업반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포전에 물도랑을 깊이 켜여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큰물과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로동신문 8.14)

- 선천군의 일꾼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 세계가 식량위기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력갱생에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 모두가 올해농사를 책임졌다는 자각 하에 군 안의 협동농장에 내려가 논벼와 강냉이, 콩을 비롯한 알곡작물이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장 일꾼들은 논물관리공과의 사업을 통해 논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고인물을 제때에 뺐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또한 콩밭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물도랑을 깊숙이 만들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민주조선 8.22)

- 은률군 원평협동농장에서는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병해충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모든 작업반에서는 곳곳에 병해충 예찰초소를 세워놓고 예찰원이 예찰예보사업을 잘하도록 하면서 병해충이 나타나는 즉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또한 일기조건과 포전상태에 맞게 잠복소를 설치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병해충 피해막이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있는 이들은 논물 채우기와 뺐기, 논물말리우기, 논고에 그물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해충을 모조리 잡음으로써 담당한 포전에서 곡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논물관리공 뿐만 아니라 농장원 모두가 병해충 피해막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음.

□ 현지도

○ 김정일, 평안북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도(로동신문 7.10)

- 7월 9일 김정일이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현지도함.
- 김정일은 현 시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음을 강조하며 전국, 전민이 농사에 계속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을 지적함.

- 또한 새로 건설한 평북 돼지공장을 방문하여 만족을 표시하며 건설자에 대한 공로를 표시함. 더불어 축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을 강조함.

○ 김정일, 함주 돼지공장과 함주평풍덕 염소목장을 현지지도(로동신문 8.8)

- 김정일은 광포 오리공장의 생산이 부족 향상되고 함흥지구에도 또 하나의 현대적인 돼지공장이 건축됨으로써 함흥 시내 및 도내 인민에게 더 많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함주 돼지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나서는 과업을 제시함.
- 또한 돼지고기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해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을 받아들이고 새끼돼지를 계획적으로 대주기 위한 정연한 종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함주평풍덕 염소목장에서는 치즈, 젓두부, 요구르트를 비롯한 젓가공제품이 나오는 젓가공실을 돌아보고 생산설비와 가공방법을 살펴본 후 자력으로 젓가공기지를 꾸려놓은 것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였음.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수입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8,07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356만 달러에 비해 1.5% 감소하였음(전월 14,653만 달러 대비 23.3% 증가)
- 반입은 8,23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841만 달러에 비해 5.0% 증가하였음(전월 6,440만 달러 대비 27.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3.3%, 농림수산물 24.9%, 광산물 7.7%, 철강·금속제품 9.8%, 전기전자제품 9.9% 등임.
- 반출은 9,84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0,515만 달러에 비해 6.4% 감소하였음(전월 8,212만 달러 대비 19.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16.1%, 농림수산물 8.6%, 섬유류 29.3%, 기계류 15.6%, 전기·전자제품 12.3% 등임.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053만 달러로 전월 1,531만 달러 대비 34.1% 증가하고 7월 전체 반입액 8,231만 달러의 24.9%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61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4%),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2,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44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7.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845만 달러로 전월 796만 달러 대비 6.1%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 박류·대두유 등 농산물이 70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1%), 분유 등 축산물이 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1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16,276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340만 달러에 비해 6.1% 증가(전월 18,074만 달러 대비 9.9% 감소)
- 반입은 7,88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958만 달러에 비해 32.3% 증가(전월 8,231만 달러 대비 4.3%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석유류 39.2%, 농림수산물 20.4%, 광산물 8.4%, 철강·금속제품 6.8%, 전기전자제품 11.7% 등임.
- 반출은 8,39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381만 달러에 비해 10.5% 감소(전월 9,843만 달러 대비 14.7%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11.8%, 농림수산물 5.6%, 석유류 24.5%, 기계류 15.0%, 전기·전자제품 12.8%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610만 달러로 전월 2,053만 달러 대비 21.6% 감소하고 8월 전체 반입액 7,880만 달러의 20.4%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59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5%), 어패류 등 수산물이 1,01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2.9%)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472만 달러로 전월 845만 달러 대비 44.1%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대두유 등 농산물이 38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6%), 우유 등 축산물이 2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2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3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6,782만 달러로 전년 동월 17,207만 달러에 비해 2.5% 감소하였음(전월 16,276만 달러 대비 3.1% 증가)
- 반입은 9,96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486만 달러에 비해 53.5% 증가(전월 7,880만 달러 대비 26.4%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9%, 농림수산물 28.6%, 광산물 9.0%, 철강·금속제품 6.2%, 전기전자제품 9.1% 등임.
- 반출은 6,82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0,720만 달러에 비해 36.4% 감소(전월 8,396만 달러 대비 18.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11.1%, 농림수산물 6.2%, 섬유류 30.7%, 기계류 13.9%, 전기·전자제품 19.1%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852만 달러로 전월 1,610만 달러 대비 77.1% 증가하고 9월 전체 반입액 9,960만 달러의 28.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송이버섯 등 농산물이 1,92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9.4%), 합판 등 임산물이 8,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8%), 어패류 등 수산물이 92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3%)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420만 달러로 전월 472만 달러 대비 11.0%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대두유 등 농산물이 33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9%), 분유 등 축산물이 1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3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표 1 2008년 7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3,026,114	6,121	7.4	농산물	6,145,565	7,022	7.1
대두	400,000	569		쌀	79,982	148	
녹두	200,000	211		감자	101,532	240	
들깨	94,196	140		대두	14,500	5	
무	11,000	14		밀가루	144,794	112	
마늘	774,230	1,804		기타곡분	1	6	
기타채소	118,462	150		들깨	13,140	20	
고사리	315,440	2,188		복숭아	5	0	
죽순	3,960	6		자두	30	0	
표고버섯	8,094	56		오렌지	2,550	12	
기타버섯류	38,938	319		수박	1,105	1	
밤	38,000	35		배추	30	1	
기타식물성유지	510	4		무	129	0	
제조담배	603	5		당근	120	0	
식물성한약재	314,964	490		양파	6,631	14	
소주	10,037	1		마늘	903,700	1,215	
맥주	16,200	12		기타채소	11,479	64	
물	666,480	108		난초	7	0	
면류	15,000	10		대두유	1,354,860	2,375	
				박류	3,050,000	1,828	
				사료	181,328	175	
				간장	4,374	11	
				겨자	8,360	20	
				마요네스	1,000	3	
				기타소스류	623	3	
				커피조제품	1,592	27	
				제조담배	3,235	122	
				소주	9,000	13	
				맥주	17,028	17	
				위스키	633	36	
				기타주류	92	1	
				정당	165	3	
				기타당류	13,250	46	
				물	11,728	13	
				김	50	1	
				사탕	171	4	
				비스킷	2,426	9	
				곡류가공품	1,148	6	
				빵	47,114	104	
				면류	84,268	175	
				빙과류	981	4	
				기타농산가공품	71,099	162	
				종자류	59	2	
				견	915	24	
				기타농산물	331	1	
축산물	-	-	-	축산물	44,435	97	0.1
				쇠고기	7	0	
				돼지고기	241	1	
				소시지	5,622	10	
				로얄제리	250	1	
				우유	47,386	76	
				분유	4,220	86	
				기타낙농품	18,066	14	
임산물	2,970	2		임산물	104,537	147	0.1
기타목재류	300	1		제재목	7,150	3	
기타임산물	2,670	2		합판	81,952	112	
				삼유판	5,018	6	
				건축용목제품	8,065	23	
				목제식탁용품	2	0	
				기타목재류	1,200	1	
				수목류	700	2	
				종자류	450	0	
수산물	3,086,059	14,410	17.5	수산물	448,225	1,100	1.1
넙치	100	1		기타어류	716	14	
기타어류	54,816	223		새우	8,500	33	
새우	282,559	1,269		오징어	19	0	
꽃게	2,097	5		문어	62,260	480	
기타게	47,816	131		기타조개	40,000	138	
문어	293,763	1,163		기타연체동물	19,658	56	
피조개	2,040	13		김	745	5	
기타조개	499,137	639		통	2,400	12	
기타연체동물	279,989	894		미역	264,330	157	
미역	155,760	147		기타수산물통조림	2	0	
기타수산물통조림	17,630	107		기타수산가공품	37,095	130	
진조수산물	634,951	6,127		수산물	12,500	76	
기타수산가공품	697,821	2,820					
기타수산물	117,580	871					
합 계		20,533	24.9	합 계		8,456	8.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5호(2008.7.1~7.31).

표 2 2008년 8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590,829	5,920	7.5	농산물	2,738,181	3,896	4.6
대두	600,000	830		쌀	3,396	7	
들깨	40,000	59		감자	92,593	224	
무	25,000	50		밀가루	598,002	455	
마늘	640,960	1,493		참깨	4,500	23	
기타채소	123,980	194		들깨	5,400	17	
고사리	290,158	2,079		해바라기씨	500	1	
죽순	6,790	12		기타채유종실	1,500	1	
영지버섯	2,805	23		복숭아	20	0	
송이버섯	730	26		바나나	220	0	
표고버섯	3,280	37		포도	21	0	
기타버섯류	67,752	505		수박	26	0	
밤	38,000	35		무	150	1	
식물성액즙	4,080	29		오이	105	0	
간장	2,985	1		마늘	760,800	723	
된장	8,170	5		기타채소	8,912	19	
제조담배	859	8		대두유	956,000	1,572	
식물성한약재	155,560	402		기타식물성유지	50	2	
소주	8,640	13		사료	116,614	77	
물	516,080	88		간장	8	0	
면류	30,000	20		겨자	8,292	19	
기타농산가공품	25,000	12		기타소스류	782	2	
				커피조제품	11,934	37	
				초코렛	100	7	
				제조담배	5,490	187	
				소주	1,380	2	
				맥주	17,334	17	
				위스키	674	32	
				기타주류	360	0	
				정당	200	1	
				물	1,110	5	
				기타음료	14	0	
				사탕	20	0	
				비스킷	2,167	10	
				곡류가공품	1	0	
				빵	70,011	193	
				면류	44,256	134	
				빙과류	520	1	
				기타농산가공품	21,445	53	
				종자류	225	17	
				견	1,849	50	
				기타농산물	1,200	5	
축산물	-	-	-	축산물	33,074	256	0.3
				소시지	1,481	3	
				우유	23,455	213	
				기타낙농품	6,281	9	
				모류	1,857	31	
임산물	-	-	-	임산물	222,188	230	0.3
				합판	160,444	91	
				단판	20	10	
				섬유판	3,850	4	
				건축용목제품	52,115	107	
				기타목재생활용품	11	0	
				기타목재류	528	9	
				수목류	5,220	9	
수산물	2,256,262	10,187	12.9	수산물	305,077	345	0.4
기타어류	60,370	126		대구	48	1	
새우	349,961	2,182		기타어류	463	4	
기타게	122,430	415		김	396	7	
문어	268,250	1,387		돛	8,000	40	
기타조개	339,164	849		미역	265,680	157	
기타연체동물	122,104	428		기타해조류	540	21	
미역	92,880	88		기타수산물통조림	181	1	
기타수산물통조림	12,060	35		기타수산가공품	29,769	116	
건조수산물	146,400	1,427					
기타수산가공품	697,645	2,770					
수산부산물	12,500	78					
기타수산물	32,498	401					
합 계		16,107	20.4	합 계		4,727	5.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6호(2008.8.1~8.31).

표 3 2008년 9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946,658	19,287	19.4	농산물	2,367,392	3,373	4.9
완두	365	1		쌀	6,196	14	
들깨	105,704	166		옥수수	24,300	88	
마늘	662,060	1,543		감자	111,348	256	
기타채소	173,426	313		밀가루	493,341	339	
고사리	179,028	1,317		참깨	9,450	33	
영지버섯	3,200	46		사과	30	-	
송이버섯	394,365	14,797		배	1,015	6	
표고버섯	10,000	59		자두	105	-	
기타버섯류	62,106	468		감	72	2	
밤	38,000	35		바나나	362	2	
제조담배	603	5		포도	330	-	
식물성한약재	238,313	524		수박	2	-	
소주	10,368	1		멜론	44	-	
물	69,120	11		토마토	10	-	
				양파	340	1	
				마늘	750,060	713	
				기타채소	9,296	16	
				기타화초	100	1	
				기타산식물	750	1	
				대두유	662,700	1,025	
				사료	101,903	62	
				간장	13,007	30	
				토마토케찹	8	-	
				겨자	4,685	10	
				기타소스류	284	1	
				커피조제품	4,120	18	
				제조담배	8,360	252	
				소주	5,580	8	
				맥주	11,748	14	
				위스키	1,274	54	
				정당	8,853	9	
				물	4,610	8	
				김	143	1	
				사탕	30	1	
				비스킷	1,311	5	
				곡류가공품	819	3	
				빵	84,671	205	
				면류	36,108	115	
				빙과류	465	1	
				기타농산가공품	7,460	19	
				종자류	295	11	
				견	1,807	49	
축산물	-	-	-	축산물	47,710	171	0.3
				닭고기	640	1	
				소시지	279	1	
				우유	24,398	73	
				분유	18,308	91	
				기타낙농품	4,085	5	
임산물	9,180	8	0.008	임산물	380,148	395	0.6
합판	9,000	8		합판	292,294	146	
기타목재생활용품	180	-		건축용목제품	73,457	232	
				목재틀	7	-	
				기타목재류	120	1	
				수목류	14,270	16	
수산물	3,326,042	9,233	9.3	수산물	194,173	262	0.4
기타어류	38,702	71		대구	710	6	
새우	340,566	1,765		기타어류	20	-	
기타게	82,615	295		낙지	800	2	
문어	102,423	380		김	836	5	
피조개	4,846	13		꽃	6,200	91	
기타조개	1,060,131	1,378		미역	171,900	103	
기타연체동물	764,541	1,028		기타수산물통조림	124	-	
미역	116,616	104		기타수산가공품	13,583	56	
건조수산물	87,154	820					
기타수산가공품	619,884	2,778					
기타수산물	108,564	602					
합 계		28,528	28.6	합 계		4,201	6.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7호(2008.9.1~9.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소 계	63,313	2,797	3,473,404	63,432	5,599	3,924,251	7,397,655	450,848
2008.1	2,573 (1,759)	221 (169)	68,930 (55,581)	3,035 (1,848)	496 (340)	71,573 (37,168)	140,504 (92,749)	2,643 (△18,431)
2008.2	2,001 (1,533)	181 (170)	59,904 (44,431)	2,368 (1,586)	427 (339)	58,981 (37,797)	118,885 (82,228)	△923 (△6,634)
2008.3	2,513 (1,93)	209 (166)	79,310 (58,636)	2,886 (1,823)	460 (399)	78,587 (44,515)	157,897 (103,151)	△723 (△14,121)
2008.4	2,397 (1,803)	213 (180)	72,751 (46,029)	2,576 (1,891)	432 (431)	71,497 (86,840)	144,248 (132,869)	△1,254 (40,811)
2008.5	2,505 (2,222)	227 (187)	77,218 (63,397)	3,120 (2,115)	472 (443)	95,506 (88,531)	172,724 (151,929)	18,288 (25,134)
2008.6	2,332 (2,010)	209 (180)	64,410 (57,385)	3,091 (2,094)	471 (409)	82,128 (97,858)	146,538 (155,243)	17,718 (40,473)
2008.7	2,533 (2,060)	222 (192)	82,313 (78,414)	3,577 (2,254)	493 (426)	98,436 (105,150)	180,749 (183,564)	16,123 (26,736)
2008.8	2,367 (1,982)	212 (195)	78,800 (59,582)	2,715 (2,445)	427 (449)	83,966 (93,817)	162,766 (153,399)	5,166 (34,235)
2008.9	2,632 (2,013)	218 (198)	99,602 (64,868)	2,777 (2,161)	449 (403)	68,219 (107,206)	167,821 (172,074)	△31,383 (42,338)
소 계	21,853	419	683,238	26,145	771	708,894	1,392,132	35,748
총 계	110,193	3,666	4,921,988	116,308	7,172	5,665,695	10,587,683	743,707

주: 1) ()안은 2007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5~207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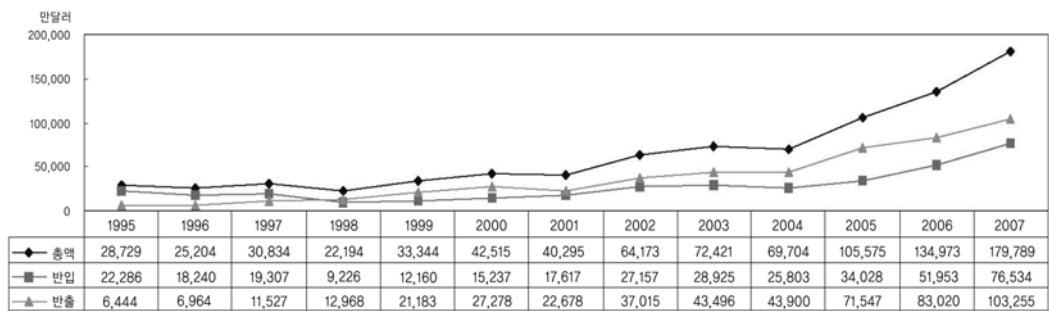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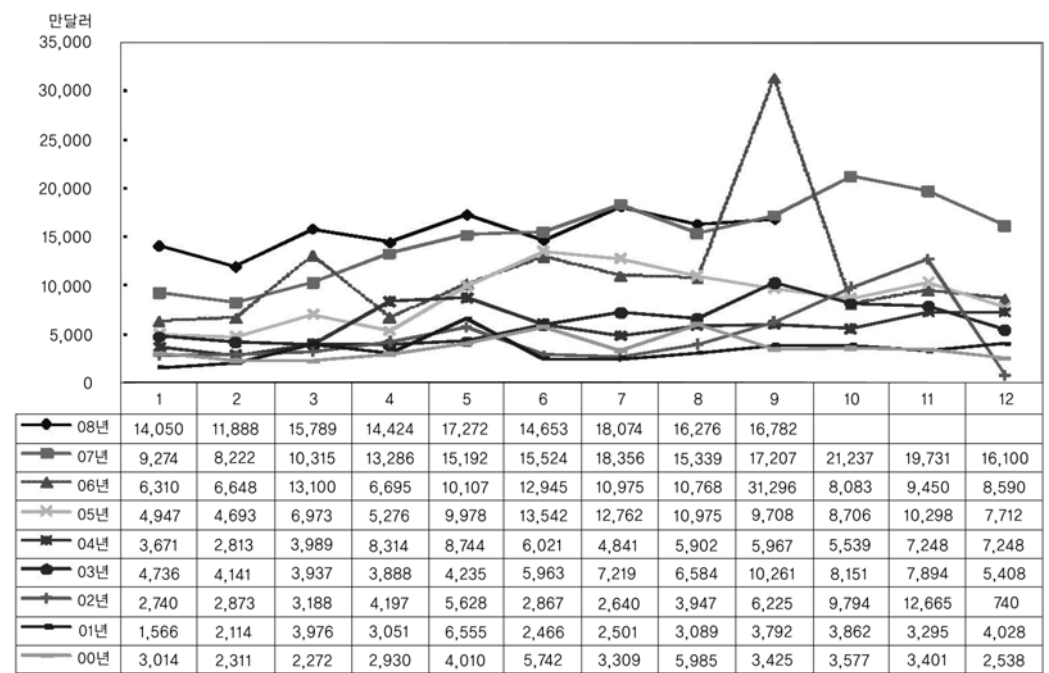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소 계	369,037	3,302	50,566	668,724	1,091,630	805,660	21,784	20,954	14,985	863,383	1,955,013	△228,247
2008.1	5,324 (2,996)	- (-)	10 (26)	12,820 (13,345)	18,154 (16,367)	8,611 (3,002)	165 (32)	320 (41)	397 (27)	9,493 (3,102)	27,647 (19,469)	△8,661 (△13,265)
2008.2	2,751 (-)	- (-)	- (-)	10,849 (-)	13,600 (-)	3,979 (-)	51 (-)	207 (-)	317 (-)	4,554 (-)	18,154 (-)	△9,046 (-)
2008.3	3,855 (2,069)	1 (-)	24 (5)	12,155 (9,666)	16,035 (11,740)	4,475 (3,111)	97 (291)	1,141 (774)	158 (143)	5,871 (4,319)	21,906 (16,059)	△10,164 (△7,421)
2008.4	4,796 (3,386)	- (-)	16 (18)	12,519 (6,250)	17,331 (9,654)	6,674 (2,316)	97 (70)	756 (487)	489 (219)	8,016 (3,092)	25,347 (12,746)	△9,315 (△6,562)
2008.5	4,308 (4,229)	- (-)	2 (-)	11,159 (13,317)	15,469 (17,546)	6,918 (3,405)	120 (162)	1,433 (941)	397 (281)	8,868 (4,789)	24,337 (22,335)	△6,601 (△12,757)
2008.6	4,928 (4,826)	18 (33)	8 (-)	10,357 (11,322)	15,311 (16,181)	6,722 (25,530)	257 (16)	395 (160)	590 (161)	7,964 (25,867)	23,275 (42,048)	△7,347 (9,686)
2008.7	6,121 (5,636)	- (-)	2 (7)	14,410 (13,606)	20,533 (19,249)	7,022 (21,652)	97 (23)	147 (169)	1,100 (223)	8,456 (22,067)	28,989 (41,316)	△12,077 (2,818)
2008.8	5,920 (5,689)	- (26)	- (-)	10,187 (7,818)	16,107 (13,533)	3,896 (29,259)	256 (152)	230 (159)	345 (13)	4,727 (2,858)	20,834 (43,134)	△11,380 (16,068)
2008.9	19,287 (11,202)	- (-)	8 (2)	9,233 (5,085)	28,528 (16,289)	3,373 (19,011)	171 (59)	395 (92)	262 (72)	4,201 (19,234)	32,729 (35,523)	△24,327 (2,945)
소 계	57,290 (40,033)	19 (59)	70 (58)	103,689 (80,409)	161,068 (120,559)	51,670 (107,286)	1,311 (805)	5,024 (2,823)	4,055 (1,139)	62,150 (85,329)	223,218 (232,630)	△98,918 (△8,488)
총 계	-	-	-	-	1,252,698	-	-	-	-	925,533	2,178,231	△327,165

주: 1) ()은 2007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 5~207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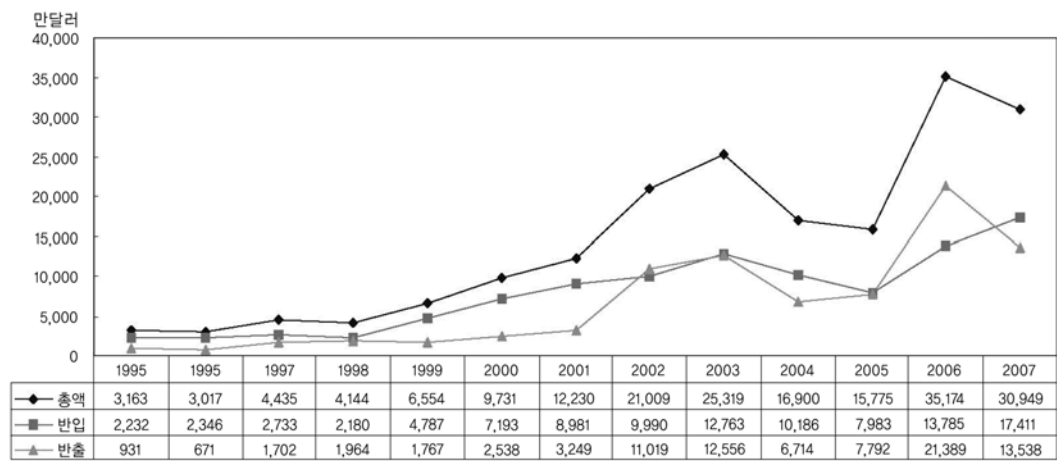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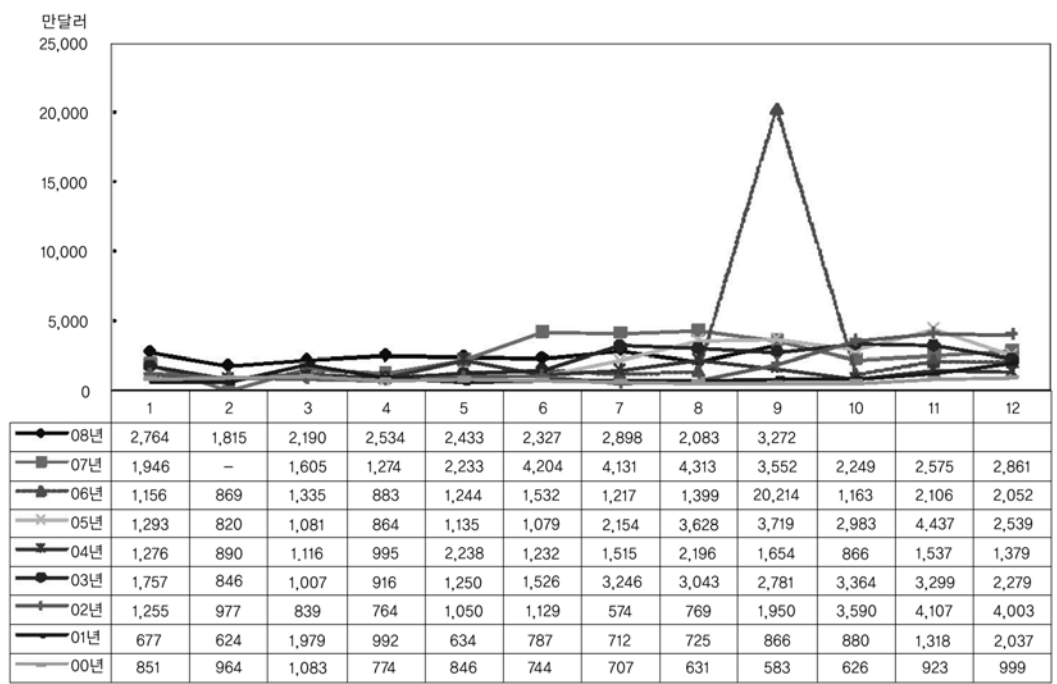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8년 7~9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대동수산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6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21개로 전체 371개 기업(단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339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6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8년 9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사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업(합 영)	조선수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음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 선봉지대 협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계단** (조사업자)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검정시험 및 계약재배지 확충, 신품종 슈퍼육수수계 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식품*(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 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안근	299만불	'99.1.8
(주)G-원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인동대마방직**	세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제품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3.18 (*04.9.17)*
제일유동**	개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제재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나무역**	개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판매·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동**	개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동**	개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동**	개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동원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북한 내수 및 해외판매)	평양, 황북 봉산군	285만불*	'07.12.31 (*07.12.31)*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업	남포	500만불*	'08.06.20 (*08.06.2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봉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봉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7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추가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2008. 7. 30)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조항을 보완·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검사·조사 권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7.31부터 8.19 까지 이를 재입법 예고함.
- 개정 내용
 -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통일부장관의 검사·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검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 통일부장관의 검사·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함(제28조의2제1항).

□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2008. 8. 19)

- 정부는 남북교역대상 물품중 반출·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견사(생사)·포켓용라이터·제3국 경유 광물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08.8.19부터 9.7까지 입법 예고함.

○ 주요 개정 내용

- 승인품목 제외 : 승인대상 품목중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전사(생사)」, 기타 법령에 제한이 있는 이중규제 「포켓용라이터」, 국내시장 수요는 많으나 저울관세 품목인 무연탄(무관세)·아연괴(3%) 등의 제3국 경유 「광물」에 대해서는 남북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승인대상에서 제외
- 민원 처리기간 단축 : 물품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 15일 → 10일로 단축
- 물품 반출입 승인사항 변경 : 승인 처리기간 10일 → 5일로 단축

□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통일부, 2008. 8. 25)

- 통일부는 2008.8.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남북관계 현황

-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7월까지 민간차원의 인적·물적 교류 등 전반적인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속 증가 추세
 - 인적왕래는 114,122명이 왕래하여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관광객 제외)
 - 물자교역은 10억 6,155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 개성공단 사업은 2008년 7월 현재 총 72개 기업(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30개 포함)이 가동, 북측 근로자 3만 2천여명 고용, 2008년 1월 ~ 6월간 약 1억 1,887만 달러 생산, 수출액은 2,117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
 -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6.15 공동행사, 체육행사 등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음.
 - 관광사업은 금강산 사건 이전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199,96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43% 증가하였으며, 금강산사건 이후에도 개성관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 2007년 동기 : 금강산 관광객 14만400명

-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요한 경험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지표인 인적·물적교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이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조건없는 대화에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촉구하고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며
 -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
 - WFP 요청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여론을 보면서 정부입장을 결정할 방침
 -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돕고 공동번영을 추구
- 금강산 사건에 대한 확고한 입장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일관된 메시지 전달
 - 다만 금강산 사건과 다른 남북관계를 분리하여 대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제2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2008. 9. 17)

- 정부는 2008.9.8~9.12 5일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개최하여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음.

①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자와 대북투자 관리의 일관성 유지 및 소액 투자자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지침명 변경(외국환 관리지침 → 외국환 거래지침), 소액투자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면제 투자금액 상향조정(30만 달러→50만 달러)등

②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차주변경(안)

- 남북협력기금 차주를 국내 모기업에서 개성법인으로 변경함으로 정부재정의 추가 부담없이 국내모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도모
- 기금대출채권의 안정적 관리차원에서 개성법인의 상환책임에 대한 국내모기업의 연대보증 병행

③ 경제협력사업 보험(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안)

- 경협기업의 대북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기업이 신청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승인
- 신청기업: (주)디엠에프(50억원), 아주양말(주)(50억원), (주)석촌도자기(50억원)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통일부, 2008. 10. 9)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8.10.10 공포·발효됨.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① 적정한 기금 지원을 위해 포괄적 기금 지원 규정인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의 구체화(시행령 제8조)
 - 민족공동체회복지원사업을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으로 세분화하여 기금사용의 투명성 강화

- ② ‘손실보조’ 명칭을 ‘보험’으로 변경(시행령 제9조)
 - 손실보조제도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전쟁, 내란, 재산물수 등)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명칭 변경

- ③ 북핵문제 진전에 대비하여 “북한비핵화계정” 신설(시행령 제13조)

- 북한 비핵화 진전시, 소요재원 확보 및 별도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비핵화 계정을 신설하고 남북협력사업과 북한 비핵화 사업간 명확한 회계처리 도모

□ 경의선(도로) 차량 통행 절차 간소화
(통일부, 2008. 11. 3)

- 2008.11.3일부터 통일부는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남북교류협력시스템-전자통관 시스템)를 강화함으로써 경의선 도로를 운행하는 개성공단 출입차량의 통행 절차를 간소화함.
- 현재 경의선(도로)을 수시로 통행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차량에 대해 전자인식(RFID) 기술을 이용한 전자운행승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생략함.
※ 차량 심사시 제출 서류 (3종) : 통행차량등록증명서, 통행차량출입확인서, 통행차량 출발·도착 보고서

(자료)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통일부 공고 제 2008-37호

2008. 8. 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 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을 말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

제4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단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단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6.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의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반출·반입승인 신청 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승인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2. 반출승인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입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나. 반출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3. 반출입승인

가. 반출·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매확약서(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를 첨부)

나.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다.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4. 변경승인

가.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나. 변경 계약서 또는 물품매매 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변경에 한함)

제8조(반출·반입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출·반입 및 반출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은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첨부서류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역보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승인물품을 반출입 한자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완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0·31 >

이 고시는 2005.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9·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4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7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26	0404-10-1099	유장(기타)
27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8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9	0409-00-0000	천연꿀
30	0410-00-3000	로알제리
31	0507-90-1110	녹용전지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2	0507-90-1190	녹용기타
33	0507-90-1200	녹각
34	0701-10-0000	감자(종자용)
3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6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7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8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9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40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41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2	0710-80-2000	마늘(냉동)
43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4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5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6	0712-20-0000	양파(건조)
47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8	0712-90-1000	마늘(건조)
49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0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1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2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3	0714-20-1000	고구마(신선)
54	0714-20-2000	고구마(건조)
55	0714-20-3000	고구마(냉장)
56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냉동 고구마 이외)
57	0714-90-9090	서류(기타)
58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59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0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1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2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3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4	0810-90-3000	대추(신선)
65	0811-90-1000	냉동밤
66	0811-90-2000	냉동대추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7	0811-90-3000	냉동잣
68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69	0813-40-2000	대추(건조)
70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1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2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
73	0910-10-2000	생강(건조)
74	0910-10-9000	생강(기타)
75	1003-00-9010	겉보리
76	1003-00-9020	쌀보리
77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78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7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0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1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2	1006-10-0000	벼
83	1006-20-1000	메현미
84	1006-20-2000	찰현미
85	1006-30-1000	맷쌀
86	1006-30-2000	참쌀
87	1006-40-0000	쇄미
88	1007-00-1000	수수(종자용)
89	1008-10-0000	메밀
90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1	1102-90-1000	보리가루
92	1102-90-2000	쌀가루
93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4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5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6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7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8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0	1103-20-1000	밀(펠리트)
101	1103-20-2000	쌀(펠리트)

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02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3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4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5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6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 · 플레이크)
108	1104-29-2000	보리(압착 · 플레이크 이외)
109	1104-22-0000	귀리(압착 · 플레이크 이외)
110	1104-23-0000	옥수수(압착 · 플레이크 이외)
111	1104-29-1000	율무(압착 · 플레이크 이외)
112	1104-29-9000	곡물(압착 · 플레이크 이외)
113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4	1105-20-0000	감자(압착 · 플레이크 및 펠리트)
115	1108-11-0000	밀 전분
116	1108-12-1000	옥수수 전분(식품용)
117	1108-12-9000	옥수수 전분(기타)
118	1108-13-0000	감자 전분
119	1108-14-1000	매니옥 전분(식품용)
120	1108-14-9000	매니옥 전분(기타)
121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2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23	1108-20-0000	이눌린
124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5	1201-00-1020	대두(사료용)
126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27	1201-00-9090	대두(기타)
128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9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0	1207-40-0000	참깨
131	1207-99-1000	들깨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32	1211-20-1100	수삼
133	1211-20-1210	백삼(본삼)
134	1211-20-1220	백삼(미삼)
135	1211-20-1240	백삼(잡삼)
136	1211-20-1310	홍삼(본삼)
137	1211-20-1320	홍삼(미삼)
138	1211-20-1330	홍삼(잡삼)
139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0	1211-20-2210	홍삼분
141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2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3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4	1211-20-9200	인삼종자
145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6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벼짚에 한함)
147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8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49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50	1302-19-1210	홍삼엑스
151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2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3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4	1702-11-1000	유당
155	1702-19-1000	기타 유당
156	1702-90-1000	인조꿀
157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8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9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0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1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62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3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4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5	1902-19-2000	당면
166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7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8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69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70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1	2103-90-1030	고추장
172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3	2103-90-9040	메주
174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75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6	2106-90-3021	홍삼차
177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8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9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0	3505-10-3000	배소전분
181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82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183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84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5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86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7	3505-20-1000	전분 글루
188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89	3505-20-9000	기타 글루

이하 별지서식 생략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8.10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³⁾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10	-	3,503	-	한국 1,149, 스웨덴 415, 유엔긴급지원자금 400, 독일 355, 이탈리아 333, 스위스 281, 네덜란드 202 등
총 계	-	171,264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8)

표 2 2008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2008.1.1~10.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ONCERN	아일랜드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CON 08 03)
	스웨덴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소 계 1,505,945	
DRK, ICRC, IFRC	덴마크	835,322	국제지원 (46.H.7-1-164)
FAO	네덜란드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유엔긴급지원	599,869	보리 및 채소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	599,869	식량안보를 위한 긴급 비료 지원
	이탈리아	219,619	농업부문 지원
		소계 2,329,155	
GAA	독일	3,110,420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독일적십자사	독일	443,787	의약품 지원 (VN05 321.50 PRK 01/08)
네덜란드적십자사	네덜란드	1,111,635	농촌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지원 (DMV0103809)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스웨덴	419,460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IFRC)	캐나다	201,410	재난관리, 보건 등 (M-012774)
PMU Interlife	스웨덴	1,243,709	인도적 지원
Premiere Urgence	스웨덴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프랑스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소 계 914,848	
개인 및 단체	체코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 그루 지원
Save the Children(영국)	스웨덴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UNICEF	이탈리아	1,399,689	긴급보건지원
	캐나다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유엔긴급자금	540,914	5세 이하 어린이 급성영양실조 경감
	유엔긴급자금	500,007	어린이 질병 감소
		소 계 2,642,020	
UNPF	유엔긴급자금	350,008	취약지역 모성보건 지원사업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적십자사	스웨덴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보건의료)
WFP	이탈리아	777,605	취약 주민 식량지원
	노르웨이	395,257	식량안보 평가 지원
	스위스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1,738,80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2009년)
	소 계	3,978,336	
WHO	노르웨이	375,490	북한 주민 인도지원
	노르웨이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0183052)
	한국	10,270,00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2008-2010)
	한국	1,220,249	말라리아 방제
	이탈리아	933,126	강원도 보건증진사업
	유엔긴급지원	550,000	양강도 및 함경북도 어린이 구제사업
	유엔긴급지원	857,256	어린이 긴급구제사업
	소 계	14,264,422	
합 계		35,032,360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8)

표 3 2008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 ~ 10.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네덜란드	FAO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독일	GAA	3,110,420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체코	개인 및 단체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지원
	이탈리아	FAO	219,919	농업부문 지원
	CERF	FAO	599,869	보리 및 채소 생산 지원
	CERF	FAO	599,869	식량안보를 위한 긴급 비료 지원
			소계 5,609,788	
식량	노르웨이	WFP	395,257	식량안보 평가 지원
	스위스	WFP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WFP	1,738,80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2009년)
	이탈리아	WFP	777,605	취약 주민 식량지원
			3,978,336	
보건	이탈리아	UNICEF	1,399,689	긴급보건지원
	이탈리아	WHO	933,125	강원도 보건증진사업
	노르웨이	WHO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0183052)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프랑스	Premiere Urgence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443,787	의약품 지원
	한국	WHO	10,290,000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 3개년 사업
	한국	WHO	1,220,249	말라리아 방제사업
	네덜란드	네덜란드적십자	1,111,635	농촌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지원 (DMV0103809)
	CERF	UNICEF	540,914	5세 이하 어린이 급성영양실조 경감
	CERF	UNICEF	500,007	어린이 질병 감소
	CERF	UNPF	350,008	취약지역 모성보건 지원사업
	CERF	WHO	550,000	양강도 및 함경북도 어린이 구제사업
	CERF	WHO	857,256	어린이 긴급구제사업
			소계 19,648,173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다부문	스웨덴	CONCERN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Premiere Urgence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ICRC	419,460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스웨덴	Save the Children(영국)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PMU Interlife	1,243,709	지난지역 인도적 지원
	캐나다	IFRC	201,410	재난관리, 보건 등(M-012774)
	캐나다	UNICEF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노르웨이 덴마크	WHO DRK, ICRC, IFRC	375,490 835,322 소계 4,605,741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국제지원
식수 위생	아일랜드	CONCERN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CON 08 03)
합 계			16,771,81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8)

표 4 2008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2008.1.1~10.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캐나다	UNICEF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재난관리, 보건 등(M-012774)
	IFRC	201,410	
	소계	402,820	
체코	개인 및 단체 소계	170,213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그루 지원
덴마크	DRK, ICRC, IFRC 소계	835,322 835,322	국제지원
프랑스	Premiere Urgence 소계	250,378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사	443,787	의약품 지원 (VN05 321.50 PRK 01/08)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GAA	3,110,420	
	소계	3,554,207	
아일랜드	CONCERN 소계	1,190,322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CON 08 03)
이탈리아	WFP	777,605	북한주민 지원 (DPRK PRRO 10488.0) 긴급보건지원 긴급보건지원 농업부문지원
	UNICEF	1,399,689	
	WHO	933,126	
	FAO	219,619	
	소계	3,330,038	
한국	WHO	10,270,00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2008-2010) 말라리아 방제
	WHO	1,220,249	
	소계	11,490,249	
네덜란드	FAO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농촌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지원 (DMV0103809)
	네덜란드적십자사	1,111,635	
	소계	2,021,433	
노르웨이	WHO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1083052) 식량안보 평가 지원 (PRK 1083273)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WFP	295,257	
	WHO	375,490	
	소계	829,049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	Save the Children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CONCERN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ICRC	419,460	ICRC를 통한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Premiere Urgence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PMU-Interlife	1,243,709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소계	4,154,932	
스위스	WFP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WFP	1,738,80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2009년)
	소계	2,805,474	
합 계		35,032,360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8)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WFP, 대북 식량지원계획 수립

- 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 주민 620만 명을 대상으로 총 5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긴급지원사업에 착수함.
 - 토니 뱅버리 아시아지역사무소장은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필요한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8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당장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각국이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함.
 - 새로운 사업은 2009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5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63만 톤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현재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배고픈 시절을 맞고 있음.
 - 이는 2007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기인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과 수입이 감소한 것도 중요한 요인임.
 - 뱅버리 소장은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사업대상 지역 8개 도 중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평양 등 5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주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의논함.
- WFP는 북한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해 59명의 국제직원을 배치하고 그 중 20여명은 신규 개설된 6개의 지역사무소에서 일할 계획임.
 - 이들 지역사무소에 배치된 국제직원들 중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식량분배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함.
 - WFP는 모니터링을 위해 131개 군 중 125개 지역에 있는 창고와 수혜기관을 방문한 바 있음.

- WFP의 대북 지원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스위스(970,000 달러), 이탈리아(770,000 달러), 노르웨이(395,000 달러), 뉴질랜드(347,000 달러), 룩셈부르크(297,000 달러) 등이 참여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WFP, Major food assistance programme planned for DPR Korea, Sep. 2, 2008)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5억불 규모 대북 긴급 식량지원 나서,” 2008. 9. 2)

□ WFP, 대북 식량지원 긴급 호소

- 세계식량계획(WFP)은 대북 긴급지원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각국에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함.
 - 장 피에르 드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식량안보가 매우 긴박하다고 밝히고 각국에 긴급 식량지원을 촉구함.
 - 9월은 시기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때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함.
 - 만일 한국이 WFP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포장에 한국 지원품임을 명기할 수 있다고 밝힘.
- WFP는 금년 8월 우리 정부에 최대 6,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재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 주요 지원 품목은 곡물류, 식물성 유지, 콩, 영양강화식품 등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北 식량안보 절박...긴급지원 촉구,” 2008. 9. 7)

□ WFP의 사업추진 상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WFP의 대북 지원사업은 “홍수 및 식량·연료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EMOP 10757.0)이며 2008. 9. 1 ~ 2009. 11. 30 동안 계획되어 있음.

- WFP는 이 사업을 통해 620만 명의 취약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 북한 전체가 식량사정이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 양강도 전역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은 특히 식량사정이 열악하며 필요한 식량을 긴급히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수혜자 중 서해안 주민 270만 명은 당장 10월 초부터 식량지원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동해안의 140만 명은 11월이면 식량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북한에서는 농작물 수확이 진행되고 있지만 11월 말이 되어야만 수확된 농산물이 도시 주민에게 배급될 수 있음.
- WFP의 사업지역은 8개도 131개 군이며 총 필요한 양은 629,938톤임.
 - 이 중에서 곡물은 525,686톤, 두류 57,456톤, 유지류 19,842톤, 설탕 7,432톤, DSM 4,142톤, 혼합식품 15,380톤임.
 -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부족한 상황이며 식량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월 8일까지 곡물 121,694톤과 두류 10,858톤, 2009년 2월 9일까지 유지류 4,887톤과 설탕 382톤이 필요하며 혼합식품 8,888톤은 당장 필요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WFP, WFP's Operational Priorities - Sep 2008, Sep. 30, 2008)

□ 유니세프 북한소장, 북한은 1990년대 최악상황 재연 중

-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 북한사무소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각종 지원·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 산하 5개 국제기구의 북한 현장책임자 5명이 10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함.
 -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유엔기구의 북한 현장책임자는 WFP의 장 피에르 드 마저리, UNICEF의 고팔란 발라고팔, FAO의 존 오 데아, WHO의 싸페시와 푸리, UNFPA 유유 대표임.
- 발라고팔 UNICEF 대표는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1990년 말의 최악의 식량난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니세프 북한소장, 북 90년대 최악상황 재연중,” 2008. 10. 23)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한국의 민간단체 남북한 당국간 경색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2008년 들어 7월말까지 북한에 318억 원(3,03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함.
- 이 금액은 2007년의 같은 기간에 지원한 312억 원보다 약간 많은 금액임.
- 지원 물품 중에는 4,000톤의 곡물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SKorean groups help NKorea despite frosty ties, Aug. 20, 2008)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양돈사업 현장 확인을 위해 남포 방문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은 7월 30~8월 2일 동안 북한의 남포시와 남한의 전라북도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현장 확인을 위해 남포시를 방문함.
- 전라북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2007년 3월부터 30만 달러에 달하는 농업시설을 포함하여 총 70만 달러 상당의 양돈사업을 남포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음.
- 남한의 한 양돈전문가는 북한의 양돈 기술이 남한의 80% 수준이라고 평가함.
- 남포-전라북도 양돈장의 돼지 사망률은 4.7%이며 210마리의 돼지 중 10마리가 호흡기 질병 등으로 죽음.
- 남한의 돼지 사망률이 3~5% 정도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양돈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양돈의 사양기술, 임신돈 관리, 새끼 돼지 관리 등에 관한 기술 등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Korean Sharing Movement visited the Nampo-Northern Jeonla Province Korean People's piggery, Nampo, North Korea, for field monitoring, Sep. 3, 2008)

□ 미국, 1995년 이후 북한에 12억여 달러 지원

-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는 1995년 이후 미국은 북한에 식량 258만 톤(7억 100만 달러), 중유 1억 4천 600만 달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지원 4억 300만 달러, 영변 핵시설 불능화 지원 2천만 달러 등 총 12억 6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 1999년 미국은 북한에 식량 69만 톤(2억 2천만 달러)를 비롯하여 KEDO 지원 등 2억 8,7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제1의 대북 지원국이었으나 2006년에는 대북 지원이 전무하였음.
- 2008년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50만 톤을 비롯하여 중유 지원에 1억 6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 2007년 미국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하여 2,000만 달러를 지출함.
- 미국은 2009년 예산에 6자회담과 중유지원 비용으로 1,500만 달러를 계상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95년 이후 北에 12억여달러 지원,” 2008. 9. 17)

□ 캐나다, 대북 긴급지원

- 캐나다 정부는 WFP의 대북 긴급지원호소에 따라 2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2007년 8월에 발생한 홍수와 후속적인 수확량 감소, 주요 식량 가격의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북한은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Canada provides emergency food ai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g. 20, 2008)

□ 민간단체 잇단 방북

-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9월 27일 평양 삼석구역 통일양묘장 착공행사를 위해 직항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힘.

- 삼석구역 양묘장은 약 10ha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양묘시설, 관리동 등을 갖추고 잣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묘목을 생산할 예정임.
-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며 불교 조계종과 민주교수협의회 등 단체, 시민들의 모금으로 충당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민간단체 잇단 방북..27일 거래하나 평양행,” 2008. 9. 23)

□ 미국의 민간단체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5차분 수송

- 미국이 북한에 지원키로 했던 식량 중 다섯 번째 수송분이 이번 주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할 예정임.
 - 이번에 수송되는 식량이 11월 중하순 경 남포항에 도착하면 미국의 5개 민간단체가 양정사업소를 통해 자강도, 평안북도 지역의 고아원, 학교, 병원, 양로원 등에 분배하게 됨.
 - 2만 5천 60톤의 옥수수과 콩이 실린 미국 국적선 ‘메리 앤 허드슨’호는 기상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18일경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미국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10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메리 앤 허드슨’호는 당초 10월 9일경에 선적을 마치고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버지니아 남부에 내린 폭우로 선적이 며칠 지연됨.
-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즈 펄스, 글로벌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미국의 5개 민간단체는 미국 정부가 내년까지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총 50만 톤의 식량 중 10만 톤을 895,000명의 북한주민에게 분배하기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40만 톤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배됨.
 -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보낸 총 11만 8천 2백 70톤의 식량은 대부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함경도와 양강도 등 8개 지역에 주로 배급됐지만, 이번 선적분 2만 5천 60톤은 전량 미국 구호단체들이 분배함.
 - 실제로, 미국 구호단체들은 첫 인도분 밀 3만 7천 톤 가운데 밀 3천 톤, 두 번째 인도분 옥수수 2만 4천 톤 가운데 4천 8백 톤, 세 번째 인도분 옥수수 3만 2천 5백 톤에서 일부를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들이 책임진 두 지역의 노약자와 임산부 등 89만 4천명에게 배급하였음.
 - 하지만, 지난달 3일에 북한에 도착한 4차분 옥수수 2만4천500t에서는 전혀 할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호단체들로서는 이번 선적분이 사실상 4차분인 셈이라고 해

명하였음.

- 월드비전의 크루즈 공보관은 현재 다음 달에 선적될 6차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당분간 미국 구호단체들이 대북 지원 식량의 구매, 선적, 분배를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Mercy Corps and World Vision, Aid agencies send fourth U.S. food shipment to North Korea, Oct 16. 2008)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deport_nk-10172008161941.html (자유아시아 방송, “美 대북지원 식량 5차분, 선적 마치고 17일 출항,” 2008. 10. 17)

□ 이탈리아 정부, 다자지원 형태로 북한 지원 참여

- 이탈리아 정부는 FAO의 긴급 대북 인도지원 호소에 참여하여 15만 유로를 원조하기로 결정함.
- 이 자금은 FAO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농업재건사업에 사용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Italy, DPR Korea: Multilateral contribution, Oct 17. 2008)

□ 호주·캐나다, WFP 대북 긴급지원 참여

- 호주와 캐나다 정부는 WFP가 최근 새로이 시작한 대북 긴급 식량지원프로그램에 각각 300만 달러와 200만 달러씩을 지원키로 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함.
- WFP의 요청에 따라 2008월 10월 16일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스위스 271만 달러, 이탈리아 78만 달러, 노르웨이 40만 달러, 뉴질랜드 35만 달러, 룩셈부르크 30만 달러 등임.
- WFP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최대 6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10월 19일까지 진행될 작황조사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에 지원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호주·캐나다, WFP 대북 긴급지원 참여,” 2008. 10. 17)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콩우유 공장 건립자재 북송

-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중 평양시 락랑구역 콩우유 공장 건립을 위해 건축자재를 북한으로 보냄.
- 경통협은 1차로 시멘트와 철근 등 15톤 분량의 건축자재를 보내고 콩우유 공장이 완공되는 2009년 4월까지 필요한 각종 철골자재와 패널자재, 설비자재 등 90여 톤 상당의 건축자재를 보낼 계획임.
- 경통협은 평양시 장교리에 소학교를 신축하여 금년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들 학생들과 인근 유치원 어린이에게 안정된 영양 공급을 위하여 430㎡ 규모의 콩우유 공장을 착공하게 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경통협, 콩우유 공장 건립자재 북송,” 2008. 10. 21)

□ 강원도 동해시, 대마특화사업 대북협력 모색

- 대마를 지역의 신성장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는 북하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학기 시장 일행이 10월 29일부터 4일간 평양을 방문함.
- (주)안동대마방직(회장 김정태)은 현재 북한과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평양에서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 공장 준공식을 가질 예정임.
- 평양대마방직은 안동대마방직과 북측 새별총회사(총회장 리명준)가 절반씩 총 3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평양 선교구역 영제동에 세운 섬유 및 물류회사로 부지 47,000㎡에 1,000명 내외의 북한 근로자가 일할 예정임.
- 김정태 회장은 공장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6천~1억 달러 규모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동해시, 대마 특화사업 대북협력 모색,” 2008. 10. 23)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남북합영 평양대마방직 준공,” 2008. 10. 21)

북한 고역 동향

1. 북한의 수입 동향

표 7. 북한의 주요 곡물류 대중 수입 실적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10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수입액(천 달러)							
2007.11	0	2,880	1,570	164	3,527	840	8,981
	(0)	(317)	(1,118)	(17)	(2,129)	(24)	(3,615)
12	0	1,758	7,217	164	5,350	72	14,561
	(0)	(592)	(1,191)	(0)	(2,646)	(30)	(4,459)
2008. 1	0	547	3,707	0	1,770	674	6,698
	(0)	(88)	(1,164)	(19)	(2,518)	(250)	(4,040)
2	0	6,875	2,976	2	0	1,331	11,184
	(0)	(268)	(1,952)	(19)	(1,257)	(686)	(4,181)
3	160	4,300	38	0	0	7,166	11,665
	(3)	(168)	(279)	19)	(1,880)	(26)	(2,374)
4	0	0	0	0	0	97	97
	(0)	(662)	(2)	(40)	(2,888)	(467)	(4,059)
5	0	0	0	0	0	166	166
	(0)	(0)	(0)	(0)	(2,115)	(2,930)	(5,045)
6	0	11,504	0	0	0	0	11,504
	(0)	(431)	(2,903)	(0)	(2,581)	(3,754)	(9,669)
합 계	160	27,845	15,508	330	10,647	10,083	64,856
	(7)	(2,525)	(8,609)	(115)	(18,014)	(8,167)	(37,435)

수입량(천 톤)							
2007.11	0	14,400	5,065	364	13,565	1,424	34,818
	(0)	(2,113)	(3,855)	(57)	(10,138)	(62)	(16,225)
12	0	9,253	21,870	443	20,577	73	52,216
	(0)	(3,700)	(3,970)	(0)	(12,600)	(91)	(20,361)
2008. 1	0	2,605	11,233	0	6,556	1,087	21,481

	(0)	(550)	(3,880)	(0)	(10,948)	(658)	(16,036)
2	0	27,501	8,752	21	0	2,773	39,047
	(0)	(1,673)	(6,729)	(60)	(5,464)	(1,804)	(15,731)
3	390	15,927	99	0	0	14,930	31,346
	(13)	(985)	(845)	(60)	(8,173)	(71)	(10,147)
4	0	0	0	0	0	123	123
	(0)	(3,780)	(1)	(0)	(12,544)	(1,226)	(17,681)
5	0	0	0	0	0	210	210
	(0)	(0)	(0)	(0)	(8,956)	(9,912)	(18,868)
6	0	37,111	0	0	0	0	37,111
	(0)	(2,485)	(9,685)	(0)	(10,818)	(12,145)	(35,133)
합 계	390	107,032	46,966	828	40,518	20,658	216,392
	(26)	(15,335)	(28,948)	(373)	(79,648)	(25,987)	(150,317)

주: () 안은 전년 동기 실적임.

자료: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2007년 가을 수확 이후 2008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216,392톤의 곡물류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입이 44% 증가하였음.
-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6,486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음.
- 2007/08 양곡연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늘리는 것은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7년 11월과 12월의 곡물 수입 증가 현상은 중국의 곡물 수출쿼터제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2008년 4~6월 동안 옥수수과 두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수입실적이 전무함.
- 4~5월 동안 옥수수 수입 실적이 없었으나 6월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옥수수 수출 쿼터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4월 이후 콩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수입 실적이 없음.
- 밀가루는 1월 이후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음.
- 북한은 2008년 1~6월 동안 중국에서 총 21,488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757만 달러임.
- 2007년 같은 기간의 수입량 55,327톤(수입액 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2008년의 수입 단가는 톤당 352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의 수입 단가 145달러에 비해 2배 이상임.
- 2008년 전체 수입 비료의 86%는 요소 비료이며 12%는 유안임. 2007년의 경우 요소와 유안 비료의 수입 비중은 각각 36%, 32%였음.
- 북한이 2008년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를 성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9,000톤에 불과하여 적정 필요량의 1.5%에 불과함.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7~8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9월은 평년에 비해 낮음.
 - 27개 관측지점의 7월 평균 기온은 23.1℃로 평년 기온 21.9℃에 비해 1.2℃나 높았으며 8월과 9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22.5℃와 18.3℃로 평년의 22.4℃와 17.0℃에 비해 각각 0.1℃, 1.3℃ 높았음.
 - 영농철이 시작된 5월 이후 평년보다 계속 높은 기온을 유지함.
- 7월과 9월의 기온은 많은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1℃ 이상 높았으며 북부지대는 더욱 높아 가을작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9월의 높은 기온은 벼와 옥수수의 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곡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강수량

- 5~6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낮았으나 7~8월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강수량을 나타냄으로써 물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금년은 집중 호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유실, 매몰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 다만 9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하였으며 북부 지방은 강수량이 현저히 낮아 일부 밭작물의 가뭄 현상이 우려됨.
- 9월의 강우 일수가 적었던 점은 벼와 옥수수의 생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등숙을 좋게 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됨.
 - 다만 채소 등 밭작물의 경우 9월의 낮은 강수량은 가을가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10월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경우 김장채소의 생산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벼의 수확기까지 강우 일수가 적을 경우 벼의 등숙에 좋은 영향을 미쳐 정곡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으며 금년의 경우 금년에는 대부분의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누적강수량, 7~9월

(단위 :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392.3 (375.5)	377.0 (429.6)	363.4 (304.9)	470.0 (365.3)	264.3 (304.6)	240.3 (432.5)	334.9 (358.1)
김책	수봉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267.9 (327.9)	675.0 (536.6)	312.1 (393.9)	642.7 (538.6)	717.4 (699.5)	535.4 (690.9)	413.3 (466.0)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고성
322.9 (414.2)	607.8 (610.7)	498.6 (568.4)	807.2 (747.4)	571.2 (503.0)	478.7 (497.3)	1041.4 (784.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539.7 (536.6)	727.9 (658.5)	731.0 (530.1)	820.3 (600.7)	863.9 (687.4)	1157.5 (753.4)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7월	기 온	24.3 (23.5)	24.6 (24.0)	23.6 (23.4)	22.3 (19.9)	24.6 (22.1)	24.9 (22.5)
	강수량	225.4 (296.9)	292.4 (243.5)	475.4 (263.5)	165.0 (111.3)	166.0 (193.1)	331.9 (261.0)
8월	기 온	24.0 (23.9)	24.6 (24.1)	24.9 (24.5)	21.9 (21.7)	23.2 (22.8)	23.4 (23.2)
	강수량	359.2 (214.6)	235.7 (176.4)	263.4 (214.0)	192.0 (128.8)	210.3 (177.7)	374.5 (286.8)
9월	기 온	20.0 (18.4)	20.6 (18.8)	21.3 (20.0)	18.6 (17.5)	19.5 (18.1)	20.0 (18.8)
	강수량	23.2 (99.2)	43.1 (83.1)	81.5 (123.2)	6.4 (64.8)	37.0 (95.2)	100.8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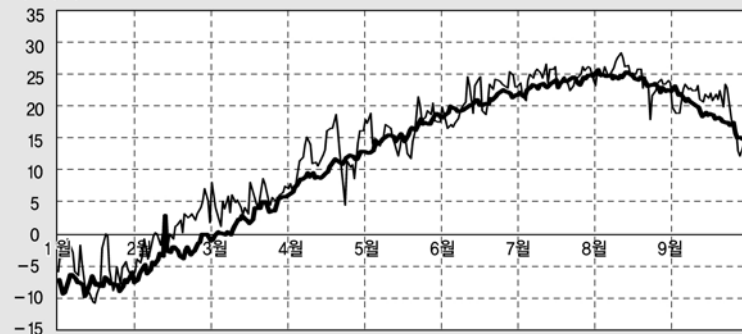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봉,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고성,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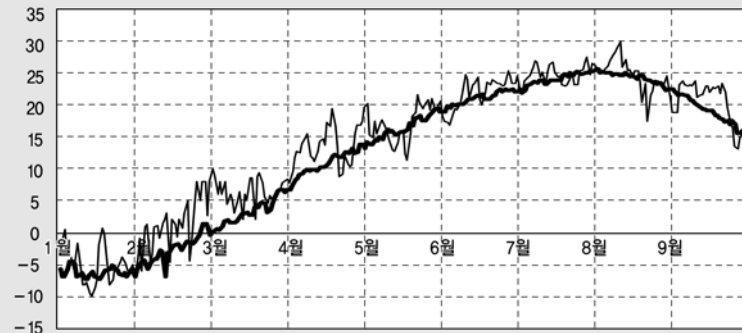
안주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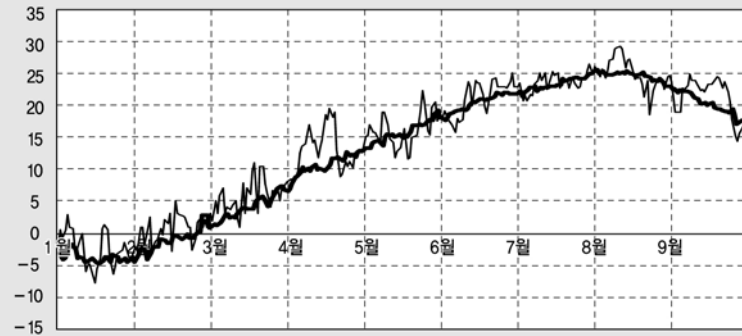
평양

기온(°C)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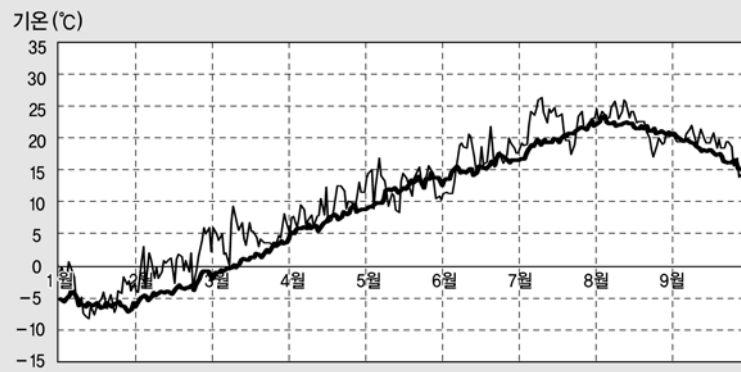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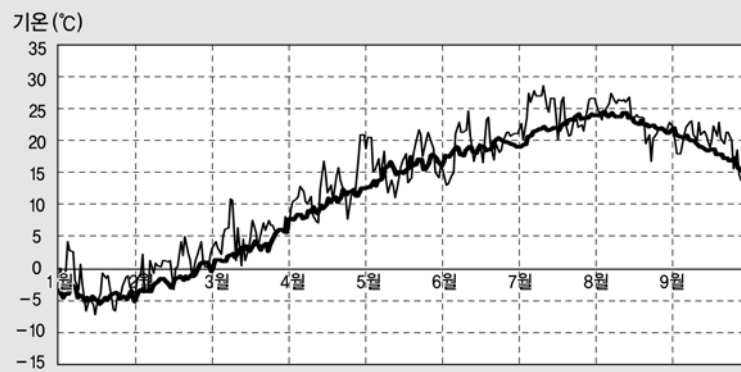
— 08년

—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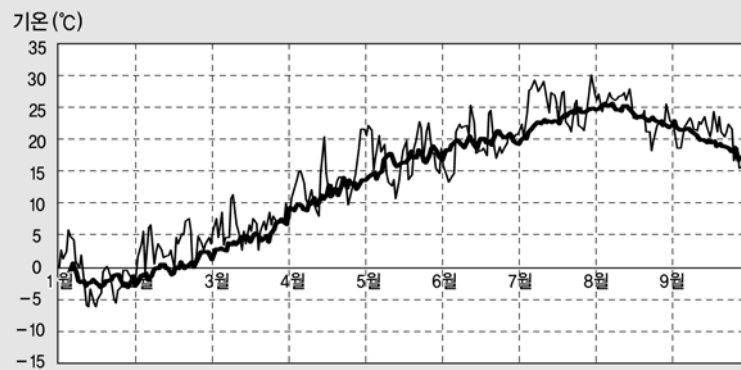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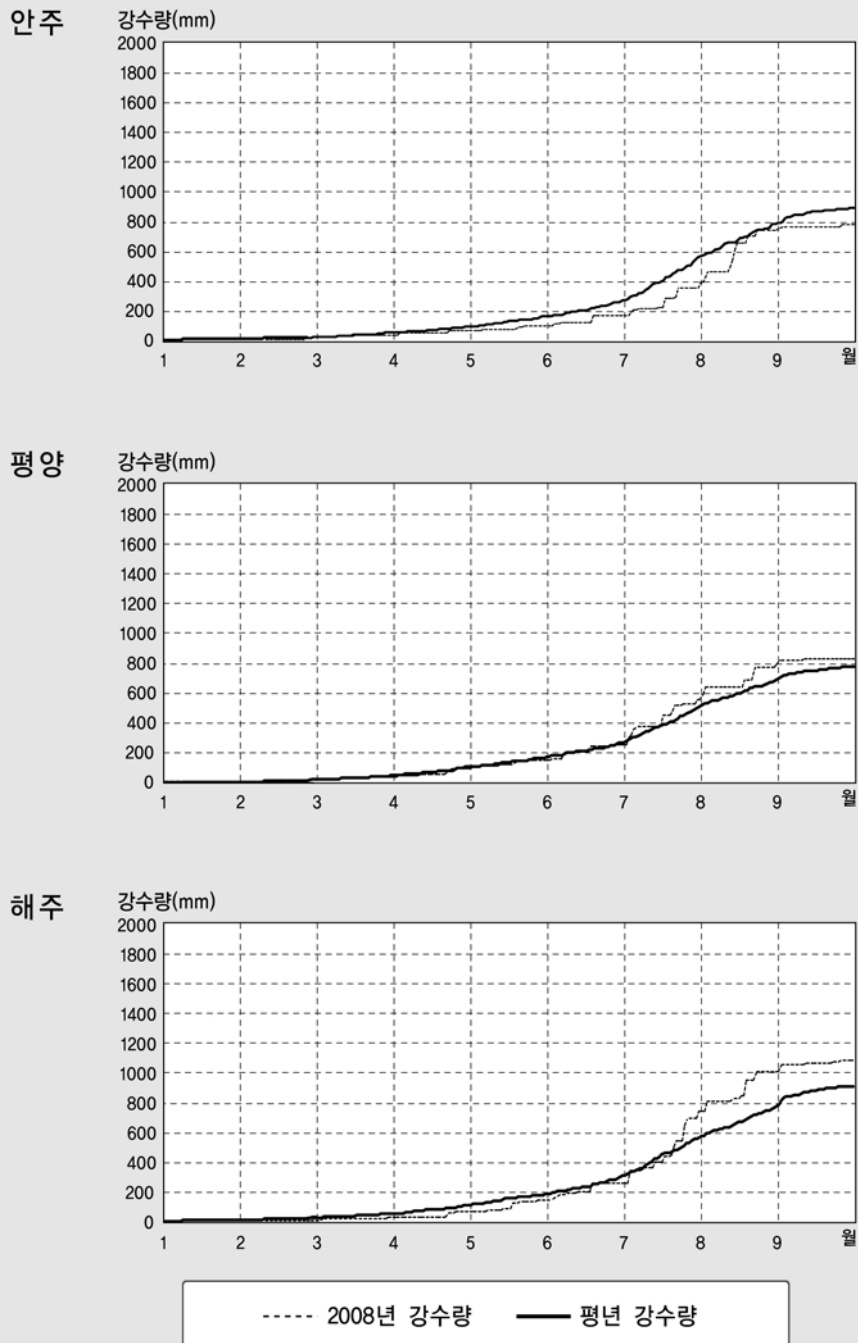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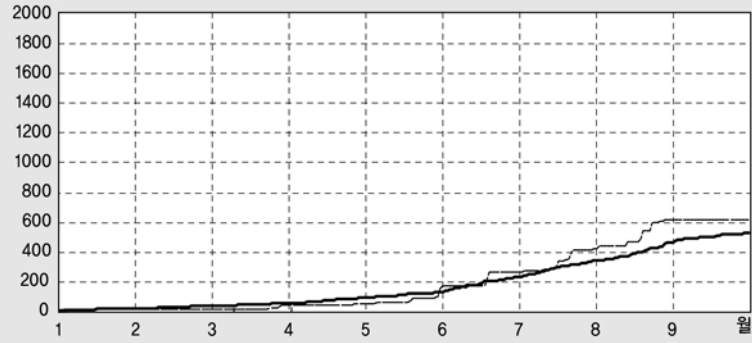
— 08년 — 평년 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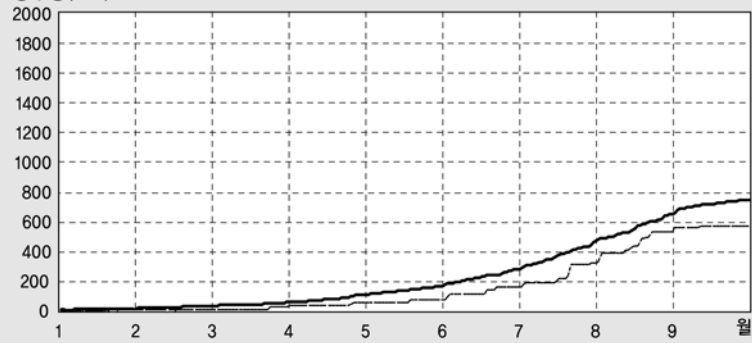
청진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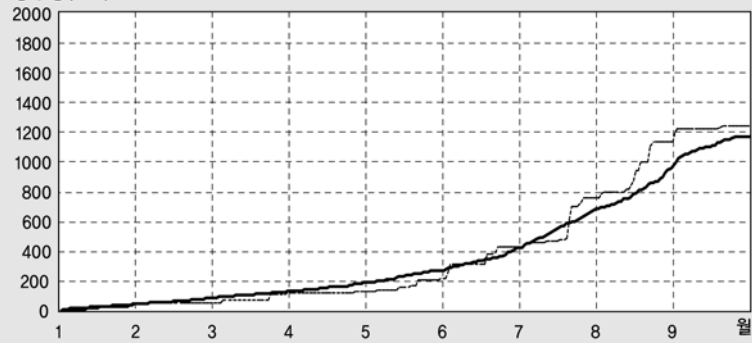
함흥

강수량(mm)



원산

강수량(mm)



----- 2008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E02-2008-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0권 제3호

찍 은 날	2008. 10.	펴낸날	2008. 10.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